朝鮮日報
夕刊
二十五日(木)
本紙朝刊ㆍ夕刊十面

比率的結果齎來할 新方式斷乎反對

米國主張과는根本的으로相違

海軍當局態度强硬

【東京電話聯合】아메리카트리뷴紙의報道하는바에依하면 米國政府는 英國政府의 海軍比率主義抛棄聲明에 關聯하야 二十三日 海軍問題에 對한 最高方針을 協議한結果 從來 米國政府가 海軍制限方式의 金科玉條로 固執하고잇는 比率主義를 斷念하고 安全感均等을 共同原則으로하는 新方式達成에 邁進하기로 決定하야 이에 關한 四大原則을 確立하엿다는 報道인데 海軍에서는 아직 公電에 接하지아니하엿스므로 이에 對한 意見開陳을 避하고 잇스나 右報道가 事實이라면 日英米三國間에 橫在한 根本的障碍가 除去되어 昨年末부터 事實上 決裂狀態에잇는 軍縮會議 前途에 一光明을 齎來하는것으로 英國政府가 企圖하고잇는 今年末의 本會議는 相當히 期待할수잇게될것이다 海軍當局의 意向을 綜合하건대 如左하다

一、끗까지 比率主義를 固執하고잇던 米國이 겨우 日本의 提案에 귀를 기우리게 되것은 참으로 기쁜 現象이라고하지안흘수업다 日本의 提案이 公正妥當한것인以上 賢明한 米國은 반듯이 理解할것이다라고 期待하고잇섯다

一、그러나 米國이 생각하고 잇섯다는 이比率主義에 代位할 海軍制限의 新方式이란 무엇이나 新方式의 基調로서 米國政府는 安全感 均等原則을 提唱한다고 傳하고잇스나 英國의建艦宣言이건 上記의 安全感均等이건 그內容如何에 따라서는 實質的으로 比率主義의性質을多分히 包藏하고잇다

一、日本이 提案한 比率主義撤廢는 名實兼備의 撤廢인 以上 如何한 方式이건간에 그結果比率的이 되는것은 反對하지안흘수업다

一、따라서 米國이 그原則에 잇서서 特히 宣明할 必要를認定하고 잇다는『安全感의均等은 반듯이 各國保有兵力量의 均等을 意味하는것이 아니다』에 對해서는 全혀 意見을달리하는 者이다 이米國의觀念에 基한것이라고 하지안흘수업다 比率主義撤棄를 云云하면서 아직 이말을 듯게되는것은不可解 이다

一、日本이 希望하는바는 最高軍備國이 自發的 意思에 依하야 不脅威 不侵略을 鐵則으로한 軍備의 實現이다

(寫眞은 大角海相)

比率撤廢代償으로 太平洋沿岸의 防備制限엔反對?

倫敦側의米國態度觀

【電通倫敦二十四日發】모렐海相이 比率主義撤廢를 宣言한것은 將來 海軍會議의 一障碍를 除却한것이라고 보고잇는데 當地에서 行하고잇는 風評에 依하면 米國은 比率主義撤廢의 代償으로 太平洋防備制限協定의 方針에 對하야 反對意向을 近近表明할것이라고 하고잇다

軍艦建造에關하야 事前에獨逸에通告

【電通倫敦二十四日發】英國海相 몬셀氏는 二十四日 下院에서 如左히 言明하엿다

英國及 獨逸兩國은 今後 軍艦建造에對해서는 그起工、完成日時 其他의 詳細에 關하야 互相 事前에 通告할것을 協定하엿다

카토릭黨態度緩和로 金本位離脫危機減少

【電通海牙廿四日發】和蘭의 코라인內閣은 下院의 第一黨인 카토릭黨의 反政府態度로 重大危局에 直面하야 이에 伴하는 金本位制 離脫의 可能性이 促進되게 되엇는데 코라인首相은 此際에 財界의 危機招來와 이 打開에 對處할 一切의 責任을 카토릭黨에 轉嫁하야 同黨單獨으로 時局收拾에 當케하든지 그러치안흐면 政府와 完全한協力을 하든지의 二途가 잇슬뿐이라고 하고잇스므로 카토릭黨도 좀反政府態度를 緩和하야金本位離脫의 可能性은 顯著히 少減되게되엿다

米國은끗까지 몬로主義로一貫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루즈벨트米大統領은 將來 世界의 어떠한 場所에서 戰爭이 發生한 境遇에 參戰國數가 漸次 增加하야 畢竟 戰禍를 米國에까지及할 可能性이 잇는데對하야 完全한 豫防工作을 準備해둘 必要를 느끼고 合衆國이 戰禍에 휩쓸려 드러가는것을 阻止함에 有効한 中立維持의 機構를 此際에 立法化해두고 십다는意向을 二十四日 言明하엿다

猛烈化한各國建艦競爭

海軍條約滿了後 英巡洋艦十隻建造

伊太利도建艦에着手

【倫敦二十四日發聯合】英國唯一의 海軍通으로 令名이 노픈 데일리텔레그라프紙의 바이워터氏는 二十四日의 同紙上에서 英國政府가 華府、倫敦兩條約滿期後 即時 巡洋艦擴充을 計畫하고 現在의 五十隻을 六十隻까지 建造할 意向이라는것을 明白히하야 如左히 論하고잇다

華府、倫敦兩條約이 滿期되면 英國은 即時 現行巡洋艦五十隻을 곳 六十隻으로 增大할 目的으로 建造를 開始할것이라고 解釋되다 即 英國海軍은 近代式戰艦은 적고 大部分은 舊式이어서 戰鬪에 堪當할수업는것이다 一九三六年末이 되면 巡洋艦의 半數、驅逐艦의 半數、潛水艦의三分二는 艦齡을 超過하게 되므로 過般 成立한 英獨海軍協定도 그根據는 主로 右에 依한것이다

【羅馬二十四日發聯合】伊太利政府는 二十四日 官報로서 海軍建造委員會에서 一億四千萬리라를 支出하기로 決定하엿다는 旨를 公發하엿다

海軍士官增員案에 루즈벨트大統領署名

【電通華盛頓二十三日發】루즈벨트大統領은 海軍士官(技術官等 特殊技能士官을除함)을 一千三百十二名에 增加하야 常備海軍士官總數를 六千五百三十一名으로 하는 增員案에 二十三日 署名하엿다

米政府太平洋防備强化案研究中

【電通華盛頓二十四日發】消息通의 情報에 依하면 米國政府는 明年十二月末日의 華府條約의 期限滿了와 同時에 알류선、괌島及 必要한 他의太平洋 屬領諸島의 防備强化案을 研究中이라고 傳하고잇는데 國務省과 海軍當局은 一切 言明을 避하고잇스나 米國政府는 太平洋에 잇서서의米國海軍의 優勢維持의 斷乎한 決意를 公式으로 表明할것으로豫想되다

日本攻擊의활살은 英國쪽으로轉向

에國에武器輸出한다고

【羅馬廿四日發聯合】伊、에兩國紛爭에 對하야 日本政府가 『關心的靜觀』을 表明한以來 各紙는 一齊히 日本攻擊의 論陣을 펴서 痛烈히 『有色人種의 野望』을論難하고잇는데 二十四日에 至하야 日本攻擊의記事는 突然 伊太利 全國의 新聞紙上에서 姿態를 감추게되엇다 右는 뭇솔리니 首相이 日本攻擊의 不利益한것을 깨닷고 全國新聞紙에 禁令을 내린것이라고 解釋되다 鶴一聲에 伊太利新聞은 一齊한 統制를 보이고 인제는 英國政府로 攻擊의 활살을 轉하야 英國政府가 에디오피아政府에 武器輸出을 禁止하지안는것과 英國政府가 理事會의 招集을 强要한것을 痛烈히 攻擊하고잇다

中國國際無線電話營業開始

【電通上海二十四日發】國民政府交通部의 國際無線電話는 國內電話와의 連絡及 祕密確保의 設備가 進捗되엇스므로 드듸어 八月十五日부터 正式通話取扱營業을 開始하기로 決定하엿다

伊에紛爭解決의 對理事會態度決定

英閣議서熟議한結果

【電通倫敦廿四日發】伊에紛爭問題에 關한 聯盟理事會를 來週에 압두고 지금 英國의 理事會에 對한 態度는 注目의 的이 되어잇는데 英國政府는 今日午前十一時부터 閣議를 開하고 理事會에 對하야 取할 英國의 政策에 對하야 熟議한 結果 各閣僚는 如左한 意見에 一致되엇다고 諒解되다

一、英國政府는 極力 伊、에紛爭問題調査를 爲하야 聯盟에 相當한 期間을 與할것을 根本方針으로 할것

一、右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야 今週末 壽府로 出發을 이른 無任所相에 對해서는 左의訓令을 與할것 即

가、伊太利의 聯盟脫退를 極力防止하는 同時에

나、一方 理事會로 하여곰 和라、伊에雙方으로 하여곰 그主張을 開陳시킬것

다、紛爭事件委員會에 紛爭問題의 全般的討議를 하게하고

右外에 今日 閣議에서는 對에 武器輸出을 許可할 與否의 問題에 對해서도 協議를 거듭한 結果 各閣僚의 意見은

一、對에武器輸出許可에 賛成

一、但佛政府와 協議한後에 最後的決定을 할것

에 一致되엇다고 諒解되다

압놀氏佛首相訪問

【電通巴里二十四日發】압놀聯盟事務總長은 二十四日 라발佛首相兼外相을 訪問하고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하야 懇談하엿는데 聯盟特別委員會의 開催期日을 七月三十一日로 하고십다는 旨를 提議하엿다고 觀測되다

特別理事會開會期 月末까지延期?

리議長의態度注目

【電通壽府廿四日發】伊에紛爭審議의 聯盟特別理事會 開會期를 事務總長이 英佛連絡에 時日이 걸린結果 七月三十一日 까지 延期될것으로 信憑되게되엇는데 目下 壽府에 가까운 알프스山地에서 休養하면서 形勢를 엿보고잇는 理事會議長 리트비노프 蘇聯代表의 反伊的態度는 相當히 뿌리기픈바가 잇서 右를 리ー드하는데 큰影響을 及할것이라고 注目되고잇다 即 리트비노프議長은

一、侵略行爲禁止、安全保障確保의 原則은 國際平和維持機關인 聯盟의 性質上 如何한 事態에 對해서도 그것을 擁護하여야 할것이며 直接間接에 紛爭을 惹起할 憂慮가 잇

는 紛爭當事國의 任에 當할것

一、右紛爭의 局限에 反對하고 規約第十一條 第十二條 第十五條를 充分活用케하야 聯盟의 權威를 維持할것

等의 意向下에 英國의 協力者로 理事會를 上記의 方向으로 指導하려고 企圖하고잇다고 信憑되며 或은 强硬한 決議案을 作成하야 伊太利脫退의 機會를 만들것이 아닌가하는 觀測도 行하고잇다

人事·集會

◀伊東四維氏(京城府尹)今般京龍沿江水害人事次二十五日來社
◀權重植氏(京城府社會課長)同上
◀崔益夏氏(高陽郡守)同上
◀李聖寶氏(東大門署保安主任)同上
◀金康旺氏 本社新築社屋落成人事次來社

對에武器輸出說

陸軍當局은一笑

【東京電話聯合】伊에紛爭에 關하야 여러가지 浮說이 돌아다니는데 特히 日本이 에디오피아에 對하야 武器를 輸出하느냐에 對해서는 各國은 非常한關心으로써 보고잇는데 이에 對하야 陸軍當局은 陸軍으로서는 에디오피아에 對한 武器輸出問題는 言明할 必要를 認定치안는다 에디오피아에 對한 日本態度에 對하야 여러가지 說을 말하는者도 잇는모양이다 이는 日本을 그渦中에 引入하려는데 마이다 라고 一笑에 附하고잇다

對에武器輸出解禁 聯盟採擇에一任

英國閣議決定內容

【電通倫敦廿四日發】英國政府는 二十四日의 閣議에서 一般의 豫想에 反하야 對에國武器輸出解禁에 關하야 單獨行動을 避하고 체코슬로바키아、佛國、瑞典等의 武器輸出國과 協議한後 問題를 聯盟理事會에 提出하기로 決定하엿는데右는 끗까지 聯盟의面目을 保持하려는 英政府의 態度를 表明한것이라고 보인다 即 閣僚의 大多數는 武器輸出問題에 關하야 暫定的으로 對에디오피아武器禁輸를 解除하는것이 至當하다는意見도 잇섯스나 聯盟의 努力을 기다리는 政府의 大方針에 基하야 武器輸出問題도 聯盟의 採擇에 맛기려고 決定한것이오 또 同時에 對에디오피아武器輸出의 單獨解禁으로 새로 伊太利의 感情을 刺戟하는것을 避하려고한 것도 閣議決定의 一原因이라고 한다

印度聯邦法案 滿場一致可決

【電通倫敦二十四日發】英國上院은 今日 滿場一致로써 印度聯邦法案을 可決하얏다

宇垣總督神戶着

【神戶電話聯合】歸任途中에잇는 宇垣朝鮮總督은 二十五日午前九時十七分 神戶驛着列車로 來神하야 即時 自動車로 明石舞子濱에 入하야 地方有志와 懇談을 行한後 午後一時五分 明石驛發列車로 省墓를 兼하야 令兄의 病問安을하고 鄕里 岡山縣赤磐郡潟瀨村에 向하엿다 同夜十一時半 岡山驛發列車로 一路朝鮮으로 歸任할터이다

八面鋒

◇比率主義에서 安全感主義에、米國의態度도 右向右。

◇어느程度가 安全感을 가질만한 程度인지、各國의主觀이 各樣各異할터이니 말성。

◇比島聯邦、十一月十五日에 創立된다고、머피總督이 發表。

◇瓦家月貰보다는 草家라도 제집에살게되는사람의 心情이 생각된다。

◇藏相의 健全財政策과 陸海內農四省의 兵農兩全策이 衝突。

◇結局은 돈이야기이니 잇는以上의支出은 不可能할일、公債도程度問題이니 미리싸울것업는일。

行政院長院務代行 孔祥熙氏正式決定

【南京二十四日發聯合】行政院長汪精衛氏는 靑島로 轉地以來 相當히 健康도 回復되고잇는模樣이나 아직 全快까지에는 三四週間을 要할狀態에 잇스므로 汪院長은 病床에서 行政院副院長孔祥熙氏로하여금 院務를代行 하라고 電報로써 依賴하엿는데 昨二十四日의 中央政治會議에서 院務多事에鑑하야 特히副院長 孔祥熙氏로하여금 職務를代行케하기로 正式決定하엿다

(寫眞은 孔祥熙氏)

蔣介石氏의 南京歸還督促

【上海二十五日發聯合】蔣介石氏는 中國의 實權者이면서 共産軍討伐을 遁辭하고 漢境에 머물러잇고 中央政局에 나서지안는다고 內外各方面에서 이러니저러니 批評을 밧고잇는데 蔣介石氏가 업고 汪精衛氏가 또한 靑島로간 中央政局은 全혀 指導者를 失하야 群小政客이 右往左往할뿐으로 政務는 停頓되고 流言蜚語는 亂飛하야 文字그대로 百鬼夜行의 狀態임에 鑑하야 참다못해 立法院立法委員인 彭養光氏는 二十四日 蔣介石氏가 南京에 歸還하야 速히 內政을 總攬하고 軍을 統帥하야 써 剿下의 運命을 救할것이라는 通電을 中央黨部、國民政府各部實業家及 各新聞社에 發하야 輿論에 呼訴코 蔣介石氏의 南京歸還을 促하엿다

新聞小史 (廿)

× 隆熙四年 八月二十二日 午後 合倂條約은 調印되엇고 二十九日에는 正式으로 條約이 發表되고 純宗帝의 告諭는 頒布되엇다 이告諭가 나오는대신 新韓文의 民間新聞은 西山에 희미한 저녁볕을 남기고 슬슬히 넘어가는 가을해처럼 소리도업시 모주리 가고마럿다 新聞史는 四千二百四十三年을 헤이는 現代의 新鮮史와 한가지 그마지막 페ー지를 닷고마것이다 이보담 먼저 大韓每日申報에는 安重根事件에 連座嫌疑로 某國에

告諭成·報筆斷

國史에殉한新聞史 (六)

民世學人

捕되엇든 安昌浩 李甲 李鍾浩 等 國境을 빠저달어나는『간다간다』의『去國行』노래가 실렷고 未久에 六月中에는 當時 裵說의 대신으로 그發行人이 되엇든 英國人 萬咸과 統監部當局사이에 買收契約이 成立되어 그人物이 一體한듯 뭇 論調記事는 全혀딴것으로 되엇섯드니 總局이되자 곳大韓字를 떼어치우고 每日申報로서 오늘까지 그特殊使命을 가지는者이다 皇城新聞은 二페ー지新聞으로 간신히 合倂顚末과 廢刊되는事情을 敍述하야 永遠히 告別되엇고 外地도 이와倣似하엿다 장마개인 京城의 市街에는 佩劍한 憲兵과 巡査들의 緊張한 把守의 거름로 좀이 업는 行人들의 발로 엇시 오고가는 줄이 끄지업는 空漠을 示唆함뿐 이엇섯다

× 大韓每日은 그조흔 때에 硬直한 言論으로 特色잇섯든外에 申采浩氏와 沿後로 張道斌氏等의 新鮮史論과 新鮮精神鼓吹가 또 큰特色 이엇섯고 皇城新聞은 그年調의 오래과 筆致의 渾厚함으로 新聞史上의 보배이엇섯고 隆熙三年後 부터는 社長 柳瑾氏

柳君敎를 밧슴어 同四年에는 『柳君敎偏明書』를 紙上에 發表하고(今의十宗敎) 그宣揚에 힘섯슬뿐아니라 朴殷植 張志淵等 諸氏로 國粹과 古史의 闡明에 만흔貢獻이잇섯다 大韓民報는 그創刊號에서부터 一面에 故貞齋李道榮畵伯의 東洋畵式의 木版時事漫畵를 連載하야 그것도 新聞史上의 異彩이엇고 當時鬪爭的氣勢를 가젓든 大韓協會의 前衛部로 자못 活潑한筆致를 보이든者이다 帝國新聞은 그主宰者 鄭雲復氏 政治的轉向함에 인하야 그國終이 特히 말할바업섯고 大韓新聞 國民新報 時事新聞等은 더욱 말할바가업다

× 經營上으로 잠깐보면 大韓民報의 創刊은 某機關의 廣告料五十圓을 밋천으로 當時에 鄭某吉濱氏의 傳洞(現鍾路小學構內)에서 興士團 所屬의 印刷所에 依賴하야 우선創刊하며 한손으로 資金을 變通하든것이니 그것도 經營史上의 한逸話이오 購讀者가 初期에는 매우零星하엿고 代金을잘아니냄으로 光武十年中의 皇城紙面에는『新聞價를 速傳하시는人은 文明之人으로 告하겟삽』의 社告를 넛코『文明錄』의 欄에는 某大臣하는 분네가 六七圓式의 滯納代金을보내엇이 揭載되어잇다『大呼爆筆』이라고 代金이 안드러오니까 新聞을못하겟다는 뜻의 社說을 씻드니 어느有力志家가『그게 말이되느냐?』고 一金數千圓을 義捐하야 그대로 繼續刊行한 우숩듯 눈물겨운일도잇섯다

× 當時의 廣告는 下待하든편이어서 힘들어다가 四面에만 실는것이 特例이엇섯고 廣告種類는 新書籍을主로 藥品等의 新式開國酒類 其他洋布等 옷감따위로되 자못稀少하엿고 契約한 廣告이어서 뚝가든綜合接排로멧칠이고 繼續하엿든것이 눈에뜨인다 新書籍은 大東歷史 大韓地理等이오 美國獨立史 埃及近世史 波蘭末年戰史 越南亡國史 그리고 瑞士建國誌 伊太利建國三傑傳等等이 거의獨擅的인데 몰아보아 當時人心과 밋讀者의 趨勢이 어데잇든가를 잘알수잇다 大韓 平版印刷로서 最初에는 小型紙이엇고 隆熙四年終의때에는 이미 現在所謂 新聞一페ー지大量가지게되 것이다 乙巳時代는 新聞史上第三期이니 總體로서 悲痛한 感傷的過程을 이루엇고 그르서終幕을 告하엿다 己未以後는 第四期이체 一種의 新時代이니이는 追後別述할가하는 바이요 明日부터『新聞人論評記』를 試하려한다

聲明書

普成專門學校校友諸氏에게告함

我等은 去六月十六日及同十九日兩日에亘한 總會의 決議事項이 우리校友會의 分裂을 버서난實行性이업고 沒常識한 脫線的決議임을 認定하얏거니와 將來그決議로因한 社會的輿論이 當時出席한七八十名에만아니라 一千三百名校友全體의 人格을疑心하고 名譽를汚損할과 如한非難이 波及될것으로 우리는 校友會의體面을爲하야 校友各個人의 名譽를保全하기爲하야 校友會의 常規에依하야 그決議再檢討의 必要를認定하고 會則에依하야 校友會再召集을 要求하는同時에 再召集要求의理由書를 六月三十日附로發表한배잇섯다

◇ 我等의校友會再召集理由書는 校友會幹部들이 各新聞紙上에 發表한廣告文(聲明書)가튼 非科學的 觀念的 感傷文句의 羅列이아니라 우리는 어데까지든지 科學的見地下에 違規한 校友會의決議는 (1)法人인母校와 自然人인當局者를 混同하야 當局者의過誤를 淺批判的으로 論評하라한것과 (2)校友會의分限以外의 行爲라는것과 (3)이러한決議는紛爭을 助長하고 擴大식혀 母校와밋校友會의 體面을 汚損하며延하야는 社會的으로 惡影響을 끼칠뿐이라는것과 (4)互相親睦하여야할 校友들을互相衝突케한것과 (5)金性洙氏個人의 刑事問題(?)를 一千三百名의 集團體가 告發한다는것은 大脫線行爲로 神聖한學院을 法廷으로 誘導하는重大한 過誤를犯한것과 (6)그모든 決議는 神聖한 普專學園을 스사로 侮辱하는 行動이라는것等을 嚴正히 批判하야 그들의 잘못을 是正하야 汚損된 校友會의體面을 回復하는同時에 一個權威의『走狗』라는 校友會의 陋名을 一掃하고 한거름더나아가 뒤에提唱할바와가티 이러한社會的不祥事를 또다시 反復하여서는 안되것다는 誠意에서 이번 事件의主因을除去하기爲하야 母校財團基礎의 確立과 學園의 公器性確保를 企圖實現하라는것이 我等의本意엿다

◇ 我等의 適法的要求에依하야 七月十四日附로 校友會는 再召集되엇다 그러면 그들은果然그들의非를깨다랏는가? 우리의本意를解得하엿든가? 아니다 그들은 自己의非를 깨닷기는 姑舍하고 도리혀 우리의正當한 主張을抹殺식히고 自己들의脫線的決議를正當化식히기爲하야 온갓陰謀와 奸策을案出하야 虛無孟浪한流言蜚語를 流布식히여 校友들의 正義感을 混亂케하얏다 뿐만아니라 總會議場에서는 暴力까지 敢行하야 自己들의 妄動과 過誤를隱蔽粉飾하기에 汲汲하엿다 따라서 我等의會議公開의 正當한要求와 世人의 要望도頑拒하고 一方的으로 議長黃台淵君은 開會劈頭에 우선傍聽禁止를 宣言하는 一方辯護한査察十四人을 시켜傍聽人數十名을 暴力으로써 逐出하얏다

◇ 그러면 웨그들은傍聽을禁止하얏는가? 그들은 暴力을行使하야가면서까지 傍聽을禁止하라는 理由가 어데잇는가? 그들의對答은 至極히簡單하다 그들은 世人의耳目을掩蔽하고 그들의 妄動을 暴力으로써 正當化하려는데 그 意義가 잇는것이엇다 萬若 그들의 할일이 正正堂堂하다면 몸소傍聽人을 請하얏슬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그들의 傍聽人逐出은如斯한 陰謀가 잇섯다는것을 自白한것인同時에 그들에게도 多少의 良心이잇섯든지 그가튼 妄動을 社會人士 眼下에는 敢行할 勇氣가업섯다는것으로밧게 解釋되지안는다

◇ 이와가티 그들은 傍聽人을 逐出하고 自派의煽動的演說을 敢行하야 會場을 紊亂케한後 議長及査察等은 言權을左右하야 問題를 圓滿히收拾하라는 우리에게는 狂暴한 腕力으로써 一言의 發言權도주지안코 四面에서 沸騰하는 再檢討案을否決하려함으로 我等은 이不法的會議를 否認하고 總退場하게되엿다 그리하야 退場하야나오는道中에 棍棒을든者들이 或은 廊下에서 迫害를加하랴하며 或은便所로 끄집어들이는等의 狂亂的場面을 演出하엿스며 學校正門압헤서는 테로學生數十名이 一校友를 棍棒으로 亂打하야 全治三週日이나 要할重傷을 加하얏다 그리고 我等이退場한 以後의 會議經過를듯건대『決議再檢討案』을 否決하얏을뿐만아니라 正當한主張을한 우리校友中 七名에게對하야는 無期停權의 橫暴한決議를敢行하얏다한다

◇ 我等이 退場한 以後의『決議事項』에 對하야는 我等이 關知할바아니나 萬若同志校友七名에게 停權處分을 敢行한것이事實이라면 그것은 그들의所爲가 橫暴莫甚하다는것보다도 그들의行動이 言語道斷이오 自家撞着이라는것을 如實히 暴露한것이다 웨그러냐하면 議長黃台淵君은 開會劈頭에 十九日決議即朝鮮日報非買同盟 金性洙氏個人을爲한 恐喝取財未遂罪로의告發等決議는『多少紳士道에 어그러진點이잇는듯하야總會에서는 그實行을實行委員에게 맛겻스나實行委員會에서此를拋棄하기로決定하얏다』고言明하얏다 果然그러하다면 그들의 그決議가『紳士道에 어그러젓다』고보게되엿다면『이것은 校友會의 脫線的決議』라고 我等의觀察과는 程度의差는잇슬지언정 그決議를全的으로 是認치안는點은 同一하다고볼수잇다 함에도 不拘하고 그『紳士道에어그러진』決議를再檢討하려하얏다고 停權處分을 敢行하엿다는것은 그들처럼組織되지못한사람으로는 到底히解釋할수업는理論的歸結이라할것이다

◇ 萬若總會가 우리의뜻대로 秩序잇게圓滿히 進行되엿더면 우리는 今番母校當局對朝鮮日報社是非問題에 對하야 母校當局의 校務行政上過誤를 率直히 是認하는同時에 朝鮮日報六月八日附母校當局에 對한 社說의 得當치못한點을 糾彈하는 簡單한 聲明書를 發表함으로써 事件의結末을짓고 우에서槪說한바와가티 한거름 더나아가 如斯한 不祥事를 또다시 하지안케하기爲하야 母校의 財團確立을 提唱하려하얏다 三十年歷史를가진 母校普成專門學校는 朝鮮의 普成專門이요 決코 어느一個人의 普成專門學校가아니다 母校가 經營難에 빠젓슬때에 財産家 金性洙氏가 六十萬圓(五千五百石秋收土地)의 巨額的寄附를聲明한것은 우리校友로서는 無限히感謝하는바이다 그리하야 우리校友中에는 金氏의 고마운行爲에 너모도 感謝하는마음에 學園의 公器性을 忘却한者가업지안엇다 그結果가 今番不祥事의 主要原因이엇스니『金性洙即普成專門學校』라는 錯誤된觀念이 今番事件擴大의 全的理由로 볼수잇다 東亞對朝鮮日報紛爭에 際하야 우리校友會가 自發行爲를 한것도 그때문이요 金性洙氏의 一個人의 刑事問題를 一千三百名의 校友가 告發하자는 決議도 이때문이다 그리고 이實例를 如實히 表現한것은 去六月十六日 臨時總會의 金氏에對한『敬意決議』라 할것이다

金性洙氏에對한敬意決議

「前校長金性洙氏가 母校今年新入生定員超過問題에關하야 當局에對하야 스사로責任을負하고 超過學生一人도犧牲업시 學業을安受케한데對하야 深甚한敬意를表함」

方今母校當局의 校務行政上 過失이 社會問題化한이때에 그들이 如斯한決議를하얏다는것은 金氏에對한 阿諂以外에는 아모것도업다 自古以來로 個人的으로 勢力家에 阿諂한者는 잇섯다 그러나 衆人의 決議로써 阿諂을 敢行한者는 이番그들以外에는 또다시 發見할수업슬것이다

◇ 母校의經營權을 金性洙氏가 引受하얏다는것은 決코 母校普成專門學校가 金性洙氏의 私有物로 되얏다는것은 아니다 또金氏自身도 營利機關이아닌學園經營을 引受한以上 自己私有物로 生覺하야서는 안될것이다 이러한意味에서 我等은左記條件을 提唱하는바이다

1、普成財團의確立

2、學園의公器性確保

3、學校名稱(普成)의恒久的保存

◇ 첫재 普成財團確立問題를 들을때에 그眞相을모르는校友들은 疑訝의 念이업지안흘것이다 母校即財團法人普成專門學校는 本來四十餘萬圓의 基本財團에 金性洙氏家의 六十萬圓寄附에依하야 百萬圓이라는 確乎한 財團이섯고 昨今兩年에 卅週年記念事業으로 卄六萬餘圓의 社會的 寄附를바덧스니 以上과 엇지財團確立을 云云할것인가 그러나 그實에잇서서 母校財團은 大正十年十二月廿八日母校가 財團法人으로되든 當時의 財産四十三萬三千圓뿐이요 昭和七年六月二日金性洙氏가 母校經營權을引受한以來于今까지 母校財産은 銅錢한눈(分)增加된 일이업다 그러면 金氏의 寄附하얏다는六十萬圓(五千五百石收土地)은 法的으로는 어데가잇는가? 여기에 關하야 或者는그것을財團法人中央學院에 드려놋코그利子로 普專을經營한다고도傳한다 普專財産을 財團法人中央學院에넛는다는것부터도 우리普專校友의容認할수업는바이지만 如何間中央財團도 六十萬六千十七圓三十八錢이 昭和四年二月十九日에 登記手續이되엿以來于今까지秋毫의 財産增加도보지못하얏다 이것이事實이라하면 現在普專經營費는 確立되어잇는 普專財團에依하야 支出되는것이아니라 金性洙氏의 私財에依하야支出되는것이아닌가?

◇ 둘재로 敎育機關은 그自體가公器性을 確保하지안흐면안된다 公立이라야公器化되고 私立은私有化되엿다는것은아니다 學園은眞理에安當한學問을硏究하며 高尙한人格을養成하는 處所인關係上 항상公器性을띄여야한다는것이며 어느때어느境遇를莫論하고 私有物化하야서는안된다

그런데 世間에는 우리普專이아즉公器化하지못하얏다는非難이잇다 即金氏가普專經營을引受한以後 自己와의 親分關係로는 自己가 任意로 操縱할수잇는 者이면 當者의 社會的名望、敎育者的人格、學識程度如何를充分히考慮치안코 或은 ×長에或은 ×長에登用한다하야 社會의非難이 此際에 이번事件에잇서서 그들은 經營者個人擁護에 餘念이업시 自己의 立場까지忘却하고 自己들의 失手를掩蔽하려는 過誤를 他人에게 轉嫁하려고하는等 良心잇는敎授로는 敢히하지못할 醜態를演出하얏다 그리하야 今番 脫線的決議한 校友會를 그치고 全校友의 名譽를 汚損하게한者는 母校를卒業한 校友보다도 非卒業生校友 다시말하면 二三人의非紳士的敎授들의 計劃的行動이엇다함은 누구나否認키어려운事實이다 이것이 即母校普專이 아직公器化되지못하얏다는것을 證言하는 事實인同時에 公器化되지못한데 이번 不祥事의主要原因이잇다는것을 我等은 거듭 指摘하는바이다

◇ 끝으로『普成』二字恒久保存問題다 金性洙氏가 母校를經營하게되자 世間에는 普專의 名稱變更은 오직時間問題라는風說이橫行한다 우리는『普專校友』니만치 母校名稱 變更風說에는 神經을 銳敏히하지안흘수업다 昨今『三十年歷史를 가진우리 普成專門學校』를자랑하는金性洙氏로서『普成』二字를 變更하려할理가萬無하다 그리고『普成』二字가『中央』二字로 變更되리라는風說에對하야 我等은조곰까지 이것은風說에 끗치기를 바라거니와 그러나 經營引受當時에 諸氏、尹命善氏等 校友가『普成』二字의 永久保存을 條件으로하여달나는 要求에 金氏가 어데까지든지 條件附引受를拒絶한 事實에 빗추어볼때에 우리校友로서는 이 問題를그대로看過할수업는가한다

◇ 結論으로 我等이 主張또는 提唱하려는바는 今番母校當局對朝鮮日報 是非問題에關한 校友會의 取한態度는 正當性을缺한脫線的 行爲인것을 再確認하고 事態를母校에有利하게 收拾하야 學校及校友會의 體面과 校友의汚損된 名譽를回復하도록 努力하는同時에 이러한 不祥事의 主要原因을 除去키爲하야 母校財團의 確立、母校의 公器性確保、『普成』二字의恒久保存을實現하도록 最後까지 奮鬪하기를 滿天下校友諸氏에게 聲明하는바이다

昭和十年七月二十二日

韓炳鈞 金璨國 梁甲錫 金大七 林禎七
朱 冀 禹炳植 歐彩淵 尹圭演 金演毅
鄭泰源 張斗華 卓在弼 金宅奎 金志炳
盧佐根 金寶喆 趙基哲 石樂衡 郭晋容
柳忠佑 方興東 南相億 李鵬洛 李秉在
李東祚 金成柱 金瑞鉉 李 極 以上

暴雨로家屋崩壞 一家族七名壓死

山언덕이문허지는바람에 江原道麟蹄郡下慘事

【麟蹄特電】 이십사일에 강원도 린제군 린제면 고사리(麟蹄郡麟蹄面古沙里)리성래(李成來)의 집에서는 폭우로 말미암아 언덕이 문허저서 집이 어퍼지는 바람에 그집가족일곱명은 전부 참혹히깔려서 즉사되엇다 시체네개는 파내엇고 남어지 세개는 방금 파내는중이라한다

京城、春川間 道路는復舊

【春川特電】 이번비에 강원도 일대의 피해상황중 이십사일오전두시까지에 판명된것은 다음과갓다

一、春川 行方不明一名 家屋倒壞 第二戶 床上浸水三戶
一、洪川 家屋流失三戶 床上浸水三四戶
一、原州 溺死一名 家屋流失三戶 家屋全壞三戶

전긔와가티 새로판명된 피해를 합하면 피해루계는 가옥붕괴와 도괴가십이호 가옥반괴가 이호 가옥침수 칠십구호에 인명의사상은 사자두명 부상자한명 행방불명두명에 달한다 그리고 춘천(春川)경성간 원주(原州)간의 도로가 파손된곳은 이십사일부터 곳 응급수리공사를 실시한결과 이십사일부터 자동차를 운전하게되엇다

纛島에赤痢

칠수구역의 전염병 발생을 극도로우려하고 이지음에 칠수지인 독도(纛島)에 적리(赤痢)환자가발생하야 위생당국을 경악케 하고잇다 부외독도면 동독도리삼백사십사번지 죽하(竹下)모의딸 국미(久美)(三)는 이십일밤부터 설사를 하고 알턴중 이십사일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바든결과 적리병으로 확정되엿슴으로 소관 동대문경찰서 위생계에서는 곳계원을 현장에 출동식혀 대소독을하야 리재민에 만연되지 안토록 할터라한다

許姈氏特志

부내 다옥정(茶屋町)백팔십사번지에사는 허국(許姈)씨는 요전번 서계동(西界洞)에서 일가족 네식구의 압사참변을 내인 유족들에게 현금오원을 보내며 간곡한 위문을 햇다한다

出獄翌日에窃盜

一萬五百圓額面株券을窃取 上京潛伏中에被捉

출옥한지 이틀도 못되여서 또 도적질하고 부상한자 ― 본적을 충남 론산군 론산면(論山郡論山面)에두고 일정한 주소가 업는 박성태(朴成泰)(三一)란자는 지난 열아흐날 대전 형무소를 나오는길로 경부선 평택(平澤)으로와서 지난 열사흗날 새벽 한시경에 평택 중선운수회사(中鮮運輸會社)에 침입하여 액면이 천오백원 짜리주권 두장과 또 오백원짜리 주권 아홉장과 또 이백오십원짜리 석장 합계 일만오백원의 주권 뭉치를 훔치가지고 또 그날 새벽 오전 세시경에 전과 평택역전 김기봉(金奇鳳)의집에 드러가 여러가지 물품을 훔처가지고는 곳서울로 올라와 부내 한강통 삼남려관(漢江通三南旅館)에 잠복하고잇는것을 지난이십사일 소관룡산서원이 탐지하고 체포햇다한다

江華行交通復舊

【江華支局電話】 당지의 비는 이십사일에 겨우 개이고 이십오일에는 경성강화간의 교통도근근히 복구가되엿다 그러나 동군 량도면 간호포(良道面澗湖浦)에 침수가되어 물이 빠지지아니함으로 그 절경인 하도면내리(下道面內里)의 산일부와 가호포의 산상부의 사이를 잘러 배수공사도 진행중이다 그리고 이번수해로 침수된전답오천정보가량이 이십오일까지에판명이 되어잇다

上海方面虎疫으로 京畿沿岸猛警戒

出入船舶의嚴密한檢疫과 沿岸民에豫防注射

최근중국상해(上海)중경(重慶)소주(蘇州)산두(汕頭)와 또가까히는 지난십일일에 금주성 반산현(錦州城盤山縣)에 각각 호열자(虎列剌)가발생하야 바로 이지방과 황해(黃海)를격하야 대치하고 잇는 왕래가 빈번한경기도에서는 매우사태를 우려하고 연안일대를 크게단속하야서 호열자의침입을 필사적으로 방지하게되엿다 즉 처재로 도내에서 전기각지에 려행하고 도라온 사람은일일히 엄중한 건강진단을하고 그방면에서 입항하는 선박의검역을 엄중히 하며 또검병(檢病)을위한 호구조사를 철저히하고 인천(仁川) 부천(富川) 강화(江華)의각 해안 부군면에는 일제히 예방주사를하고 일반 해산업자의 검병과 예방주사를 려행한다는것이다

群山商議가排擊 運送店一驛一店

【群山】 조선상공회의소(朝鮮商工會議所)의 자문으로 되여잇는 철도운송개선(鐵道運送改善)문제에대하야 군산상공회의소(群山商工會議所)에서는 지난이십일 운임할려(割戾) 제도폐지와 일역일점주의에대한 절대반대를 표명하얏다한다

支離한장마뒤 危險한土役

언덕이문허저人夫重傷

지리한 장마가 나흔 비극의 한토막 ― 이십오일 오전열시경 부내 산수정(山手町)삼번지 굴착공사장(堀鑿工事場)에서 일흡팔집전을 밧고 일하든인부 신현구(申鉉九)(三)란 사람이 노피 열자가량되는 산언덕에서일을 하다가 산이 문허지는바람에 떠러저서 바른편 다리가부러지고 또 코가 공교스럽게떠려저서 인사불성에 빠진것을 곳부민병원(府民病院)에 입원시켜응급 치료중인데 생명이 위독하다한다

光化門加入電話 千餘個本局移管

番號變改로電話時勢에大波瀾 電話局處置에加入者唐慌

중앙전화국(中央電話局)에서는 오는십월부터 본국(本局)에한하야 자동교환기(自動交換機)를 사용할터인데 이를따라서 본국에 위치가 가까운광화문(光化門)소속전화 약일천가량을 본국으로 편입하기로 되여 이십사일에 각가입자에게대하야 본국으로 편입하다는뜻과 아울러 전화번호가 변동되게되엿다는 내용의 통지를 발송하엿다 따라서 금후 이일천여명이 가지고잇는 전화번호의가치에 크게변동이 올것은 물론지금까지 백대의 조흔호수를 가지고잇든 전화주는 크게손해를보게되는세음인데 전기일천명중에는 백대의호수를 가진사람이 약반수에달한다고한다 이에이로인하야 손해를 입게된사람들은 중앙 전화국의 이러한 처치를 자못의외로 생각하고 무슨형식으로든지 전화국에 교섭을 진전시키려는 기운이 움직이고잇다고한다

着着進捗되는 第一高普新築計畫

有志들의寄附도遝至

시내화동(花洞)에잇는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京城第一高普校)교사개축계획에 관하야서는 이미보도에 그대략을 보도한바잇섯거니와 이제 그동안의 이개축계획의 실행착수 되여 오는 경과를 아려보건대 동교는 그전신이 멀리한국(韓國)시대의관립중학교(官立中學校)로부터 발단하야 관립한성고등학교(漢城高等學校)경성고등보통학교(京城高等普通學校)를거처 이래 삼십륙년이란 긴력사를 지나서 오날의 융성을 마지한것으로 그졸업생이 이미 이천오백여명에 달하며 현재 재학생이 천여명에 달하는 조선에서 공립학교로는 가장 오래고 력사가기픈 조선인 중학교임은 세인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그교사를 보건대 목조 건물이 모다 부패기에 다달어서 도저히 보강(補强)수축을 할수업게되엿고 년년히 증가되는 지원자수에 따라 학급이 증가되는반면에 협착 한교사는 그대로잇서 그 긔지의 협착을 늣길뿐만 아니라 신설된 경성중학(京中)룡산중학(龍中)등 일본내지인중학에비하야 그설비의 불비함이 현저한 상태인데 동교현화전(和田)교장은소화칠년상업에 부임한이후 동교의 가급적 설비의 충실과 그미화(美化)에 적극적 성적을 내고 잇는중 금번 이학교를 근본적으로 신축하려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작년봄에 이미 도당국에 그제안을 요청하엿스며 금년상월도회(道會)에서도 이에관하야 전의원일치의 의견을 보게되여 이미 당국에서도 그신축비용삼십오만원중 십오만원을 부담키로 내정되엿든데 그남어지 금액은 일반사회의 독지가에 기대할수밖게 업는터로 방금 속속 그기부신청이 드러오는중인데 이력사깁흔 우리자제의 교육긔관을위하야 일반유지의 특별한 성원이잇기를 바란다고한다

車載貞被檢 秘密히取調

수일전에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고등계 형사대가 시내공평동(公平洞)에잇는일선려관(日鮮旅館)을엄습하야 동려관에 묵고잇는 차재정(車載貞)(三○)을 검속하여다가 류치식혀노코 목하자못긴장한가운데 동서김(金)부장의 담당으로엄중취조중인데 소화사년광주(光州)학생사건당시의 중요인물이던 전과자재정을 검속한데대하여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최근에 그가 모모중대 인물들과 비밀히 련락하야 지하공작을 획책한흔적이 잇다는것에 착안하야 그와가티 검속한듯한데 혹시그내막에 어떠한 뚜렷한 조직사실이잠재되여 잇지나 안나하야 자못주목을 끄으는터이다

百萬圓巨財는 뉘손에떠러지나?

白善養家財産을中心으로 養子와伯母間訴訟

백만원재산을 중심으로 양자와 서자의 싸홈이 이십오일 오전 경성지방법원 제일호 민사법정에서 버려젓는데 종로일대에서 몰려간 장사사람들로서 방청석에는 별안간에 대만원이엇섯다 사건은 시내 인사동(仁寺洞)에 사는 백경진(白景鎭)이라는 스물한살먹은 청년이 그의 백모 김진양(金鎭養)을 상대로한 양자화인청구의 소송인데 원고백경진의 주장하는바를 드르면 그는백선영(白善英)의 아들로서 그의 나이 두살적인 대정륙년십일월에 그의 백부의집으로 양자로 드러가서 이날까지 그집에서 자라낫는데 여태까지 호적에는 수속을 마치지안코 잇섯는바 지난오월십륙일에 그의 백부 백선양(白善養)이 사망하여버렷스므로 그가독상속과 유산상속관계로 과부인 그의 백모 김진양에게 대하야양자입적수속을 해달라하여도 그것을 응하지안는다는것이며 피고김진양의 주장을 드르면 원고 백경진은 족하아이 이므로 집안에 아이가 귀해서 그저자기집에 데려다가 오날까지 기루고 공부를 시킨것에 불과한것이고 실상은 죽은 남편의첩 정신통(鄭神通)의 몸에서 나은 두살먹은한진(漢鎭)이라는 친아들이 잇는터이므로 족하를 일부러 양자할 필요가 업는일이라고 주장하엿다 죽은 백선양은 유명한 대금업자(貸金業者)로 생전에 돈을 만히 버려서 종로와 리문안등지에 세노는집도 수십호이며 현금도 저축한것이 만하서 실제 재산이 약 백만원 가량 되는데 그가 죽은지 불과 수월에 드되여 그재산을 중심으로하야 방금 한솟에 밥을 먹고잇스면서 족하와백모가 서로 법정에 나서서 눈을 흘기며 시비를 하고잇는것이라한다

그러고 원고측에서는 심상봉(沈相鳳)변호사、피고측에서는 권승렬(權承烈)변호사가 각기소송대리인이 되여거액의 백만원재산을 사이에두고 소송을 하고잇는 터인데 장차 어떠케귀결될것인지 자못흥미잇는 주목거리라한다

奈曼旗公署를 土兵이襲擊占領

精銳한土兵團五百餘名이 公署官員은全滅

【電通新京廿五日發】 이십오일오전아홉시 몽정부(蒙政府)입전에 의하면 이십삼일오전네시 약오백명의 정예한 토병이 흥안정청(興安政廳)인 나만기공서(奈曼旗公署)를 습격하야 공서원일동과 교전한결과 오후한시경에 동공서는 점령되고 산수(山守)참사관과 일본계지도관 두명과 기타 일본인들은 참살 또는행방불명이되고 공서원은 전멸이 되엿다고한다

「나만기」는 고륜(庫倫)에서갓가운곳으로 외몽병(外蒙兵)의책동도 잇는듯하야 사태를 매우 중대시하고잇다

取調係官압헤서 手甲으로自衛昏倒

窃盜嫌疑者를引致取調中에 重大犯人?身元嚴探

이십오일 오전 아홉시반경에 시내 동대문서(東大門署)박(朴)형사가 시내 인의동(仁義洞)모려관에서 동려관에 묵고잇던 박광국(朴光國)(三)이라는 사람을 절도 혐의로 체포하여 와서 동서 형사실에서 취조를 시작하려는 찰라에 전긔 박광국은 돌연 팔목에 채웟던「수갑」으로서 자긔이마를 때려 찍고서 『아모죄업는 사람을 이것이 어쩐일이오』라는 비명을 남기고 혼도하여 버렷는데 동서에서는 즉시 의사를 불러서 응급치료를하는 한편아직 취조를 시작하기도전이라 그신원도 확실히 알지못한터이나 혹시이것이 중대범인 이나아닌가하야 즉시경찰부에 지문을 조회하엿스며 목하 전긔박광국의 정신이 회복할을기다려 취조를 계속하리라 한다

乳母滋養の親玉 松の實キャラ

黃海道內交通 復舊는遼遠

各私鐵被害는莫大

【海州】 이십삼일 이래의 폭우때문에 황해도일대의 농작물피해와 교통두절은 매우심하야 농작물피해는 아즉 조사중이고 교통두절상황은 다음과갓다

一、황해선 천택(泉澤)영양(迎陽)간 오개소선로가 결괴하야 귀차가 불통중이나 이십륙일까지에는 개통할터이다
一、황해선 동해주(東海州)역과 룡당포(龍塘浦)역간의 토사가 문허저 귀차가불통중인데 칠월말까지에는 개통할터이다
一、황해선 김산(金山)역과 재령(載寧)역간의 선로가 침수하야 귀차가 불통중이나 이십오일까지에는 개통할터이다
一、자동차는 해주 마산(馬山)간 재령 사리원(沙里院)간 해주 사리원간 해주 남천(南川)간 해주 연백(延白)간 송화(松禾)수교(水橋)간 장연(長淵)장련(長連)간 각자동차 선로도 모다 하천증수와 철도선로의 침수때문에 불통하게되야 언제개통될는지알수업다한다

天氣豫報

曇時時晴

高氣壓은 日本海로부터 日本及朝鮮으로 퍼지는바 天津附近에는 弱한低氣壓이잇다 滿洲는曇 朝鮮은北部沿岸에안개가發生하고잇다 其他는晴曇相半 日本內地는大槪日氣가조타

昨日最高 三一、七
氣溫最低 二一、一
今日正午 〃 三一、三

運動競技

留學生蹴球 一勝一敗

平壤의最終戰에

【平壤】 平壤蹴球團主催 東京留學生蹴球團 歡迎蹴球戰은 豫定의二十三日은 雨天으로 延期되여二十四日 午後五時부터 府內 光成高普運動場에서 對崇實、O·B兩軍을 한곳에 行한바 처음 崇實軍에 二對一로 破勝하고O·B軍에게 四對○으로 敗하여結局 二戰一勝一敗의 戰績으로 最後戰을 맛치엿다

中等野球豫選

徽文軍敗退 對京商野球

大每主催 中等野球大會 朝鮮中部豫選 第二日 徽文高普 對京城商業(昨年優勝校)의 對戰은 二十五日 午前九時 十二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將積、兒玉(壘)三氏 審判아래 徽文先攻으로 開始한바 七回까지에 十五A 對四로 徽文軍 不振하야『콜드게임』으로 마치엇다

【經過】 徽文第一回劈頭에 崔淳洙君右前텍사스히트가에 나아가 二盜後 盧舜衛에三進 宋遊前安打에 崔生還 金三振으로 끗나니 一點을先取하엿스나京商도리허三個의安打와 五個의 四死球로五點을得하다 ▲第三回에 京商또二個의失策과 九個의四死球로 一擧七點을어더 大勢는 이미기울어지다 ▲第四回에 徽文宋中前安打에나아가 金慶右中間安打에三進 金舜遊飛에生還하야 一點을回復하다 ▲第五回에 京商入江四球捕逸로 生還하야 一點을加하다 ▲第六回에 徽文崔三壘安打에 나아가 盧投前퍼트 投手一暴投에 崔一擧生還、盧二進 宋三振、金三飛에 盧生還하야 二點을 겨우 回復하다、同回에도한京商一死後 二個의四球와 三壘一敗로 七回에 徽文第一回가 敗戰을 맞추다 京商一死後 二個의四球와 三壘打로 一點을 得하다 第七回 徽文三者凡退로 結局十七回에 徽文三者凡退로 二點을得하다 第七回에 五對四의『콜드게임』으로 徽文軍 惜敗하엿다 (閉戰十一時三十分)

得點
徽	1	0	0	1	0	2	0	4
京	5	0	7	0	1	2	A	15A

【京商】 [illegible] 打數23 得點15 安打4 … 1 3 3 20 2 11
【徽文】(先) [illegible] 26 4 6 0 1 5 0 2 0

善隣6 京中2

善隣商業對 京城中學의 第二回戰은 同日正午부터 善隣先攻으로 開始한바 七回까지에 六對二로 善隣리ー드하드니 降雨로因하야『콜드게임』되여 京中이敗하였다

善隣	0	1	0	0	4	1	0	6
京中	0	0	0	0	0	0	2	2

普專럭비部 鐵原서合宿練習

全日本高專럭비界의雄 普專럭비部에서는 八月一日부터 向一個月間에亘하는 夏期合宿을 할터인데 今年度에限하야서만 仁川運動場關係로 鐵原에서하기로內定되엿는바 特히鐵原郡守의好意로 鐵原公普校運動場을 周旋하야 監督李鍾琬氏의 指導로主將韓性澤君以下 部員二十名은全日本의覇權을 잡을意圖로서 炎天下에 每日二回式 猛烈한練習을繼續하리라한다

養正럭비 夏期練習

中等學校럭비界의 麒麟兒인 養正高普럭비部에서는 八月一日부터 鐵原合宿所에서 普專럭비部와함께 全日本中等럭비大會의 優勝을 目標삼고 每日二回式 猛烈한 練習을 거듭할터이라는바 鐵原地方校友諸氏의 熱烈한 後援으로 期待以上의 好成績을 發揮할것이 미더지는데 練習『멤버』는 部長梁梓華氏와 監督李鍾琬氏指導下에 主將金基勳以下 部員二十五名이라한다

京城新京마라손 險路를征服코

汶山、開城을通過

【汶山】 二十三日午前十時에 京義道一帶를 水國化하려는 暴風雨가 내림도 무릅쓰고 男兒의 意志를 세우고저 本社廣場을出發한 京城↔新京間二千六百里의 險惡한먼길을 健脚으로서 走破할 三勇士 金華榮 朴永善 鄭敏鏞三君은 當日午後八時二十分에 汶山에 到着하엿는데 一行은開城까지갈 豫定이엿스나 終日못는 暴風雨와 싸와가면서 汶山本社支局에 到着한바 選手中金君은 下腹痛과 脚部故障이잇서 참으로 가진苦痛을 바벗다는바 汶山到着까지에는 到處에渡橋와堤防은 물에침수되여破壞되고 京義街道는 十餘處나破損되여 約四百米나되는 큰江을 일우엇다 水深이 五尺이나되는데 急流이기때문에 이곳을 건너가기에는 큰傷處를 입엇스며 約千米突이나 떠나려 가기도하야 그아말로千辛萬苦를 맛보아가면서 汶山에到着하엿다

그리고 汶山一流選手 金令植君外數名의『마라손』選手가 出迎하얏스며 一行은 汶山支局서一泊後開城으로向發하엿다

【開城】 지난二十三日 京城을出發하야 新京으로가든 마라손三靑年은 近來에드믄 暴雨로因하야道路가 끈어지며 豫定코스를 走破치못하고 汶山에서一泊後 二十四日午後四時頃에 開城에到着하얏다가 翌日早朝에南川里로 出發하엿다한다

淑明籠球大邱遠征

女子中學校 籠球界에서 자못 實力을 發揮하고잇는 淑明女子高普籠球部에서는 今般 大邱地方에서 열리는 朝鮮女子籠球選手權大會에 中央地方을 代表하야 出戰케되는바 一行은 二十五日 午前十時五十分 京城發列車로 一路大邱로 遠征의길을떠낫다한다

떼杯歐米준 米國이優勝

廿七日英國과決戰

【電通倫敦二十四日發】 떼杯歐米준決勝戰 第四日 單式試合은二十四日當地에서 行한바 다음의스코어로 米國이 二勝하야優勝하엿다 이리하야 昨年度優勝팀인 英國과 來廿七、九、卅日떼杯最後爭奪戰을 行하기로 되엿다

아리손(米) 11—01 7—5 6—1 헤겔(獨)
밧치(米) 6—3 8—6 9—7 0—6 풍그람(獨)

仁川庭球大會延期

【仁川】 仁川千代田俱樂部主催의 全朝鮮庭球大會는 雨天으로 因하야 來八月四日로 延期하엿다는데 前期日에申請者는 八月二日까지 再申請하야주기를 바란다한다

8月新作 테평레코ー드

流行歌 流線型万歲 / 新民謠 살지는八月

懷抱千絲 들菊花 崔南鏞 姜石燕

8148 劇 江同大의恨長 朴世鳴 申銀鳳
8150 雜歌 南道 農夫歌 / 자진農夫歌 下眞紅 丁元鶯 伴奏 장장구경쇠
8151 단스 바다의로맨쓰 申銀鳳 / 風流人生 朴世鳴
8152 流行歌 들뜨는마음 崔南鏞 太平管絃樂團伴奏 / 情든나루 李銀波 太平管絃樂團伴奏

太平레코ー드具備 鐘書樂器店 電話光一六三七 京城鐘路二丁目

포리도ー루레코ー드 八月新譜

流行歌 달도집니다 秋夜月詞·大村能章曲 尹鍵榮
旅情多恨 片片詞·李冕相曲 金龍煥
짜스송 上海 金雲灘詞·山田榮一編 오리엔탈리즘뽀이
상투가닷다 王平詞·山田榮一編 金龍煥
西道雜歌 병신난봉가 金周鎬
회방아타령 金周鎬
讚頌歌 진실히섬길것 D·W聖歌合唱團
할렐누야찬송
劇 港口의一夜(追憶篇) 李應浩作 全玉 王平
流行歌 南洋의아가씨 秋夜月詞·南豊明曲 全玉
정말인가요 王平詞·紙恭輔曲 全玉

全玉孃復社 第一回傑作發賣!!

蔡·姜二大歌手컴비로된 히트盤 再現!!

流行歌 아득한千里길 蔡奎燁
故鄕을차저가니 姜弘植
레코ー드番號 四○六二一
發賣元 日本蓄音器商會 株式會社
콜럼비아레코ー드

漢城銀行

振興號稻扱機

全國을風靡하는名機 各地農村振興會의指定品 カワベ農具의特製品으로
一郡一店特約店募集
元賣 鮮滿總代理 振興號稻扱機原式製作所
中川商店農具部
京城府黃金町一丁目一九八番地 電話本局長一一一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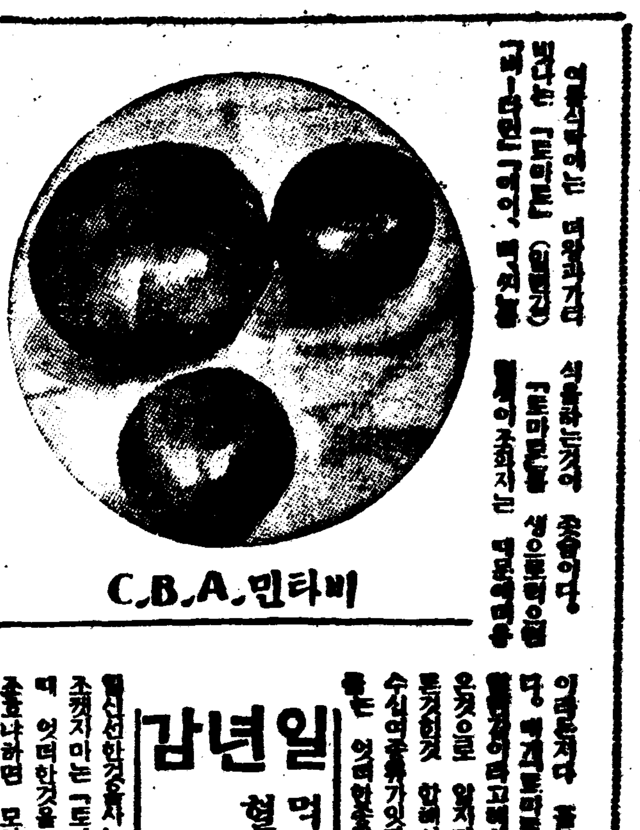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業業○職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거저 주는 과실

어떤 신사가 려행을 떠날 때에 조흔 과실을 한 바고미 준비하여 가지고 차를 타다 마츰 어떤 부인이 그 과실을 보고 탐스러워하며 저의방문하려 가는 병든 친구를 위하야『그런 실과를 어데서 구할수 잇슬가』하엿다 그 신사는 즉시 공손한 모양으로 가젓던 과실 바고미를 그 부인에게 드렷다 부인은 갑이 얼마나 되는것을 무르며 갑을 내지 안코는 밧지 안켓다는 뜻으로 구지 사양하엿다 신사는 말하기를『내가 부인께 그저 드리려합내다』하엿으나 부인은 여전히 사양하엿다 신사가 마즈막으로 말하기를『부인께서 이 과실을 그저 밧으시던지 아니 밧으시던지 그 두가지뿐이외다』하니 그제야 그 부인은 그의 관후함을 치사하며 과실을 밧앗다 이와 가치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구원밧을것을 위하야 자긔의 올홈과 자긔의 재조와 자긔의 사상을 내여노코 하나님이 갑업시 그저 주신다는 은혜를 밧지 안코려 노력하고 자만과 완강을 가진것이다 이러케 마일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로 그저 밧지 안코 무슨 갑을 내고야 밧으려면 영원히 밧을수 업슬것이니 자긔 죄로 자긔가 망할것뿐이다 그런고로『원하는 자는 갑업시 생명수를 마시라』하엿다

二十三日より
「裏町」「昨日」の名匠スタール 人心まで描く女の母性愛悲劇と爆笑の二大名篇同時大封切
一、M、G、M特作日本版 上映 極樂發展俱樂部 監督 ウイリアム·A·サイター 主演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ヴァ·ハーディ
二、ユニヴァーサル超特作日本版 模倣の人生 監督 ジョン·M·スタール 主演 クローデット·コルベール
娘の爲に一生一度の戀をすら捨てた一人の女 混血なるが故に悲惨な運命に泣く黒人の女 果して心の惱みに疲れた二つの母性愛!!
洋劇專門 浪花館

三十五年非常時의 初夏를 무엇으로 마지하나? 全世界가興味의焦點으로注目하는 江湖諸賢께告하나니 陸上의雄이며交通界의王인自動車를아러라 滿洲의分校新設 新設을앞두고 現下時勢에順應하야 男女學生募集
●第一種普通科 ●第二種營業科 (大阪門外)
南大門自動車學校 市外倉地 改訂學則要二錢送
校舍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電話本局(二)二○五六番



비타민 A.B.C

여름식탁에는 며칠과가티 식용하는것이 좃습이다. 비타는 『토마토』(赤茄子) 『토마토』를 생으로먹으면 『비─타민』『에이』, 『씨』를 빼지안코 먹는 때문에매우 다중중 잇스며 그중에도 『씨』를 제일만히 포함해잇습 으로이것은 될수잇는대로생 상으로보아서도 매우필요한 음식일뿐만아니라 고기와가 티어도 영양분이라든지맛

일년감 먹으면몸보하고 혈색이조와진다
고를때는─메인 토마토
오마박색을 쉬한일

이런것이다 굴고 엇더 다 빼지는파는 우리가 흔히 먹는것보다 맛잇게 요리되는 것으로 알지마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럼으로 『토마토』를 수십여종류가잇다고합니다 요리로는 대개 그냥써러서 소금이나설탕을 뿌려서먹으며 『사라다』나 어떤한것이든지 제 나이한것으로도 조흔 것입니다.

열식선한것을사는것이 제일 조혀지마는 『토마토』를 살 때 엇더한것을 골르는것이 조흔냐하면 모양은 둥글고 반들한것보다 약간 납작하면서 주름이잡힌것이살도 만코속도찻습니다. 다시말하면 둥글고주름살이지지안흔 것은 고기와 섞거서먹거나 소금을 꼿호로 맛불것은 『토마토』를 뭇씻슬때는 다른과실과가치 물에씻고씻서서는 안됩니다 처음 『벤진소─다』로씻고 다음에다시 『벤진』으로씻치는 것이 조흡니다

합부로 못드를 도회지의 소음
식그러워도 병생겨
시골사람이 서울갓오면 신경쇠약
외국에는 귀마개가 잇다

시골사람들이 도회지에오면 정신을잡못자리고 심하면 신경쇠약에 걸니는수가 잇습니다 이것은안온한 전원생활에 자라난 신경이 불시에 도회지의 급격한 자극을바더서 이러나는 현상이지마는 이

급격한 자극이란

무엇이야하면 물론 물야성과갓흔 매신촉 맥백촉되는 전긔스팍선갓흔것도 원인될수잇지마는 그보다더 중대한원인은 한시도 쉬새엄시 떠드는 여러가지 소음(騷音) 입니다 전차 자동차 『트락크』『모터─』 이러한 소음이 그야말로 거짓말 보태일것업시 사람의정신을 희황하게하는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소음이 사람에게 엇더한 영향을주느냐하면 조치못한

해독을끼친다는

것은말할것도업슴으로 지금 세계각국에서 이 소음방지할방법을 연구하고잇는것은 사실이나 이러한소음이 사람에게 얼마한 해독을끼치느냐하면 이것은 도회지에사는사람에게는 실로 중대한문제인것으로서 첫재 청각기관(聽覺器官)을통해서 생리긔능에 여러가지방면으로 해독이 잇습니다.

소음의정도에따라서

귀속의어느부분

이 상하는수가잇습니다. 이것은 엇더케되느냐하면 골전도(骨傳導)라고해서 소리가 신체를통해서 내이(귀속속)로드러가는것과 공긔전도(空氣傳導)라고해서 소리가 고막으로부터 내이로드러가는것이잇는데 어느것이 영향이 떠크냐하면최근에 『오─토아우디온』이라는 특수한긔계로 실험해본결과 공긔전도의영향이더 크다는것을 알게되엿습니다. 따라서 九、五『포─누포─』은사람이

아러둘수잇는

가장나진음의단위 이상의소음이 나는데 잇는사람은 귀를보호하는방법으로서 귀ㅅ마개로 막는것이 제일조흔데『마뿌크、암스토롱』이라는것이 제일조코 그다음에는 양초나 『까─제』에기름을 뭇친것이나 솜으로나 마개를 치는것이 좃습니다. 이러케하지안흐면 귀가 멀어지는때문에 독일가튼 나라에서는 소음때문에 귀가 멀어진 사람은 직업병이라고해서 특별한취급을 밧습니다 그리고

사무능률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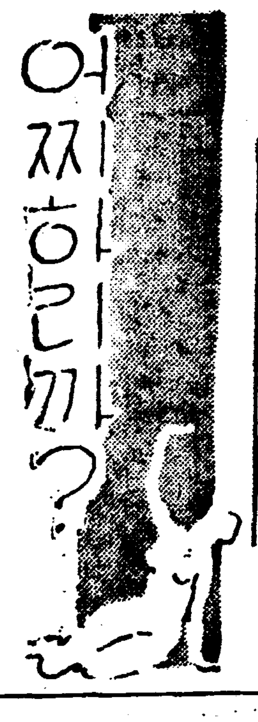
보아서는 엇더냐하면 소음이만히나는데에서는 아모리해도 사무의 능률이주는것인데 미국의 어느박사가 실험한데의하면 전화교환실의 소음을 五〇『데시벨』(이것도 미국식으로계산 가장나진음의단위)을 三五『데시벨』로 낫추엇든바 전화를 잘못거는것이 四〇『퍼─센트』나 줄엇 도쾌고합니다 어쩌게도 『라이애스튼』의 사무능률이라든지 근거계통스는동작에 직공들의 사무능률이 모다 소음에따라

좌우된다는것은

변서 다중중되는것입니다 꼿호로 생리긔능에대한 영향을말하는데는 역시 미국의『미시간』대학에서 실험한바에 의하면 사람이 자는방중에 문을열고 문밧그로 지나가는 자동차ㅅ소리를 못게하엿는데 그사람이 잠든깨지안어도 혈액은

근육의긴장하는

럼게영향한다하니 우리식중에도 어려케 요할때는문제도 업슬것으로 서어떠한 혈액이라든지 뇌내압(腦內壓)이항진하는때에따라 도수가더하는반면에 위의 공유운동은 줄어지는것입니다 그럼으로 이러한영향을피하기위해서는 될수잇는대로 면식을피하고 사람을넘우먹지말것이며 적당한운동과 일광욕가튼것을하는것이 조슴니다.



남편을돕기위해 직업을어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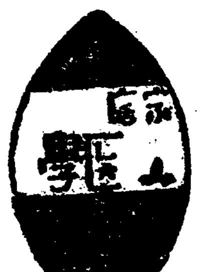
問 저는 금년이십칠세된 녀자입니다. 명색이 결혼을하고 주부가되여보니 남편이 버려다주는것으로 집안에서 소비만하야 미안하고 혼자 버는것이 딱한생각도듭니다. 비록 결혼은햇슴망정 남편과가티 직업선상에 나서서 힘닷는데까지 버러 가정생활을 좀더윤택하게하고 장래 자식들을 부미천이라도 맨드러볼까하야 산파(産婆)가되여 볼까합니다. 서울대학병원안에 산파학교가잇다는 말을드럿는데 졸업하기까지 몃달동안 공부를해야하는지 도출어에는 곳무시험으로 면허시장을바다 개업할수잇는지, 또 입학정도는 엇던지 자세히 가리커주십시요 저가 산파공부를 하겟다는 의견에대하야 남편은질리해하고 찬성합니다 (光州 一讀者)

지장이업다면야 찬성할일입니다

答 경제적으로 남편을돕는다는 그뜻뿐이아니라 가정생활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하야 직업을 구해보시겟다는 의견에 대하야 물론찬성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당신이 가정에 드러안저 엇지안허서는 안될이업스신지? 또는 밧게나가서 버시는 반면정안에 안엿기때문에 얼마마한 손해가 엇지안흘까 이점을 잘 조사하신다음에 직업을 구하십시요.

산파라는 직업은 부인네의직업으로 합마한 일일것갓습니다. 매달 일정한수입을 기대할수업스나 조흔바다에 안저수와만조흐면 상당한수입이 잇서지 못할것입니다. ─

경성대학병원안에잇는 산파양성소는 일년에 두번 사월과 구월에 생도를 모집하야 본과(本科)는 이년, 특과(特科)는 일년에졸업할수잇습니다. 입학자격은 심륙세이상의 녀자로 중등정도학교이하를마친사람이래야되고 졸업후에는 본과졸업생은 일본내지와 조선안, 특과는 조선안에서만 산파영업을 할수잇는 면허장을 밧습니다 입학시험을보아 합격한다음 이십원만 드려노흐면 별로 돈드는것도업다 하는데 그산파양성소로 직접입학심득서(入學心得書)를 구해보시면 모든것을 자세히 알수잇습니다 (담당긔자)



허리가압흡니다

問 당녀 이십륙세된 녀자이온대 임신오개월입니다 그런대 조금만일을해하면 용신을못하겟고 누어서는 잘 돌아눕지도못할만치 꼼반뒤의 허리가 압흡니다 무슨병일까요 (平原一讀者)

答 임신이되면 자궁이커저서 꼼반내의 신경을 압박함으로그와가티 허리가 압흔것이외다. 그러치안코 독리치─씨병이라고 꼼반과 척수골이 서로 접근하엿기때문에 허리가 몹시압흔수도 잇습니다 그것은 ×광선을 바어보면 곳 일수가잇습니다 좌우간 지금은 임신중임으로 엇절수업사오니 아희나나신후에 치료를 바드시도록 하십시요 (大學病院產婦人科 金鶴泳)

……강 물……

連載小說 만무방 (9)
金裕貞 作 / 安碩柱 畫

밤이 나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울퉁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떳다. 그러다 구름떼가 몰려 닥치면 캄캄한 절벽이 된다. 『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츠른 바람이 오라가락 쏠쏠이 궁굴고 잇다금 코를 찌르는 후련한 사사 내음새 풍루 산밋 미루나무에 싸여 주막이 잇는데 유달리 불이반짝인다. 노세、노세、젊어서 노라、노래소리는 나즉나즉 한산히 흘러온다. 아마 벼를 뒷심대고 외상이리라──

응칠이는 잠잣고 벌떡 일어나 밧갓으로 나섯다. 그리고다 나와서야 그집 친구에게눈치를 안채이도록

『내 잠간 다녀옴세─』

『어뒬 가나?』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서뻔히 처어다 보다 밤이 이러케 느젓스니 나갈 생각말고 어여 이리 들어와 자리 하엿다 기껀 돌이 안저서 개코쥐코 떠들다가 급작이 일어스니깐 제 이상한 모양이엇다.

『건너말 가 담배한봉 사오라구』

『담배 여깃는데 또사 뭐하나』

칙구는 호주머니에서 구지히 연봉을 끄내어 손에 들어보이드니 주게』 『이리 들어와 섞이나 좀 처

『아 참 깜빡……』

하고 응칠이는 미안스러운 낫츠로 뒤통수를 긁죽긁죽 한다. 하기는 섬을 좀 처달라구 며칠째 당부하는걸 노름에 몸이 팔리어 고만 잇고잇고 햇든것이다. 먹고자고 이러케 신세를 지면서이건 썩 안됏다、생각은 햇지마는

『내, 곳 다녀올걸 뭐……』

그 어정정하게 한마듸 남기끈 그질을 뒤에남기엇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꿋 다녀오게─』

하고 때를 재치는 법은 업섯다 언제나 여일가티

『그럼 잘 다녀오게─』

이러케 그 신신한 면하기를 비는것이다.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외를 갖고 대하는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웃쭉어려다. 빽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안저서 몃번 말만 주고밧고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러케 장한것이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 이지만, 들어가 욕보면 이야기를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라케뜨고

『아이구、그걸 어떠케 당하섯수!』

하고 저욱이 놀라면서도

『그래 그돈은 어떠캣수?』

『또 그럼 생각이 납되까유?』

『참 우리가튼 놈은에 대면 호강사리유!』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엇다. 저들도 그와가티 진탕 먹고 살고는 십흐나 주변업시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되는것이다. 응칠이는 이걸 잘알고 그누구를 논에다 꺼꾸루 박아노코 다라나다가 붓들리어 경치든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사네들은 안직멀엇네 멀엇서─』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올타는 듯이겟지、묵묵히 고개만 꺼떡꺼떡 하며 속업시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번 벼를 훔처간 놈은 응칠이를 만우 넘보든 모양갓다.

이러케 생각하면 응칠이는 더욱 괘심하엿다. 그는 물푸레 몽동이를 벗삼아 논둑길을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숙한 그믐은 칠야──

길은 어둡고 흐릿한 은저리만 눈압헤 아물거린다.

그 논까지 칠마장은 느긋하리랑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구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담 고개와 고개사이에 수목이 욱창한 산 중툭을 비겨대고 몃마지기의 논이 노혓다. 응오의논은 그중의 하나이엇다. 길에서 썩 들어안즌 곳이라 잘 뵈도 안는다. 동리에 그런 소문이 안낫을 때에는 천행으로 본놈이 업슬것이나 받듯이 섣달이의성행임에는──

오스트리아의 라체주의자들

『뉴─되는것이것은 라체주의라고합니다』는 아상변태에 구미의 첨단남녀들에게서부터 류행되기시작해서 해수욕한절도 살수업는 친구들이 올라 내세상이 왓다는드시 그들해에 따렷슴으로 목사님네나 도학자의 짜증을 바터오든것인데날세가 점점 치워오는데따라 류행도 자연의 세력에는 엇지하는수업는지 점점 자최를감추게됨으로 굵은 양반들도겨우 안심은 하엿스나 해마다 도라오는 여름철, 또 바다가를은 유혹에 들뜬님 젊은남녀들이보의 세상으로 도라간답니다 그러나 이류행이야말로 가장 통샤한 류행이여서 『오─스트리아』도 남에게 빠지지안는 풍경고인때문에 떠구나 헤안이라는것을 가지지 못한 나라임으로 목욕이라면 의례히『따뉴』강이라는것이 예전부터 정해노흔것입니다 그레서윈市─는의 가난한남녀들은 시외 오리쯤되는 녜날 『하브스부억왕가의엽장(獵場)』이든『로바우』라는 처은 섬으로 간답니다 첫녀름의 옥어진 그늘맛 푸른물결 넘치는『따뉴』강변에 인어와 갓치 전신에 실오리하나 감지 아니한 남녀의때는 그야말로 히랍신화의 어느 한장면을보는듯 하답니다. 이러한 풍취를 모르든 경관들은 풍긔상으로 보아서 전 라체주의는 절대로 용서할수 업다고 명녕을 내렷답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저─쪽에서 경관의 그림자만 보이면 모다 마치면 얼떡으로 따라 나서 맛치 『옷도세이』때와갓치『앙앙, 죽겟나』하는격으로 도리혀 경관을 놀니기만 함으로 경관들도 나중에는하는수업시 그마술사를 동원식혀서서 강을건너서 섬에 얼주게인 라체당을 일망타진으로 체포하엿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갈때는옷을 입엇는가 아니엇는가는 알수업는일입니다

家庭 메모
죽순고르는법과 맛조코 안조흔부분

죽순(竹筍)은 가늘고긴것보다 굵고 짜른것으로서 흙이만히무터잇는것일사록 조흔것입니다. 그러나 가는다란뿌리가 만히 난것은 단단해서 못먹는부분이 만흠으로 낫분것입니다. 그리고 끄테납사귀가 누른것은 띵속에드러둣든것임으로 맛이조치마는 푸른것은 넘우갈아낫거나 흙을덥지못하엿든것임으로 맛이 낫븝니다. ◇

그리고 죽순에도 단단해서못먹는부분은 강짜가튼데에 갈어서 밀가루를 살분일쓸타고, 거긔에 미나리가튼것을 써러너허서 『뎀뿌라』를 만들더지 전야가튼것을 못처서먹으면 아주맛이 조슴니다. 또는 다시마뭇터마큼 얄펀하도록베혀서 오픈기리로 써러가지고 쩡가튼것을 할때 우혜혹터서노으면 보기도조코 무난하게먹을수 가잇슴니다.

라듸오 娛樂

二十五日 (木曜)

◇午後六時三〇分 山岳探險談 梨專文科長 金尙銘
◇同六時五五分 衛生講話 今年의腸疾扶斯와赤痢의流行狀況과 其豫防에對하야 京畿道衛生課 醫博 兪鎭午
◇同八時 時事講話 普專教授 晋宙鉉
◇同八時三〇分 伽倻琴竝唱과新民謠 一、伽倻琴竝唱 (가)大丈夫 (나)花草歌 二、新民謠 (가)三角山打鈴 (나)一片丹心 (다)자진打鈴 (라)날어오네 金玉眞 細笛 高載德 長鼓 閔完植
◇同九時 라듸오·드라마 자기를얻어버린사나희 二幕四場…金海雲作…(配役)河元根(失業者)…金海雲 朴英子(그의안해)…沈元子 金永植(그의친구)…金誘誼 黃氏(財產家婦人)…金仁子 尹基順(그의딸)…朴貴介 崔大燮(辯護士)…李疏星 放送劇新人會 指揮 李如水 効果 孫一松

二十六日 (金曜)

◇午後〇時五分 花草四巨里外 一、花草四巨里 二、觀念 三、六字백이 四、興打鈴 五、개고리打鈴 高桂仙 高飛鳶
◇同二時 美術講座 繪畵의鑑賞(一) 李承萬
◇同六時三〇分 管絃樂 一、幻想舞曲…레이나─드作曲 二、여름저녁…발트토이펠作曲 三、카프리치오…토토니作曲 DK管絃團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여름과캠프生活(一) 李亨雨
◇同八時 講話 開城土俗(一) 松都高普 李瑄根
◇同八時三〇分 歌詞 一、相思別曲 二、黃鷄詞 金水晶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九時 古談 二八新婦五十郞 金錫九
◇同九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洪志裕

二十七日 (土曜)

◇午後〇時五分 (大) 하─모니카와하와이音樂 佐藤秀郎 사잔크로스카레지안스
◇同二時 美術講座 繪畵의鑑賞(二) 李承萬
◇同六時三〇分 童話 강아지가된수복이 鄭奎浣
◇同六時五〇分 兒童週間新聞
◇同八時 講話 開城土俗(二) 松都高普 李瑄根
◇同八時三〇分 兒童劇 ▲어린이와家庭의밤 遊記 全二景 朝鮮兒童藝術研究協會
◇同九時五分 明笛獨奏 一、아츰 二、옵바생각 三、荒城의달 四、會友 五、夜想曲 鄭德潤 伴奏 金吉洪
◇同九時二〇分 별별풍내 石泉
◇同九時三〇分 獨唱과피아노獨奏 一、獨唱 當身에게…스피─크作曲 二、피아노 쎌스…쇼팡作曲 三、獨唱 (가)緩徐曲…메트리作曲 (나)님의恕바게…볼레이크作曲 四、피아노 前奏曲…쇼팡作曲 五、獨唱 悲歌…마스네作曲 獨唱 李相徹 피아노伴奏 金今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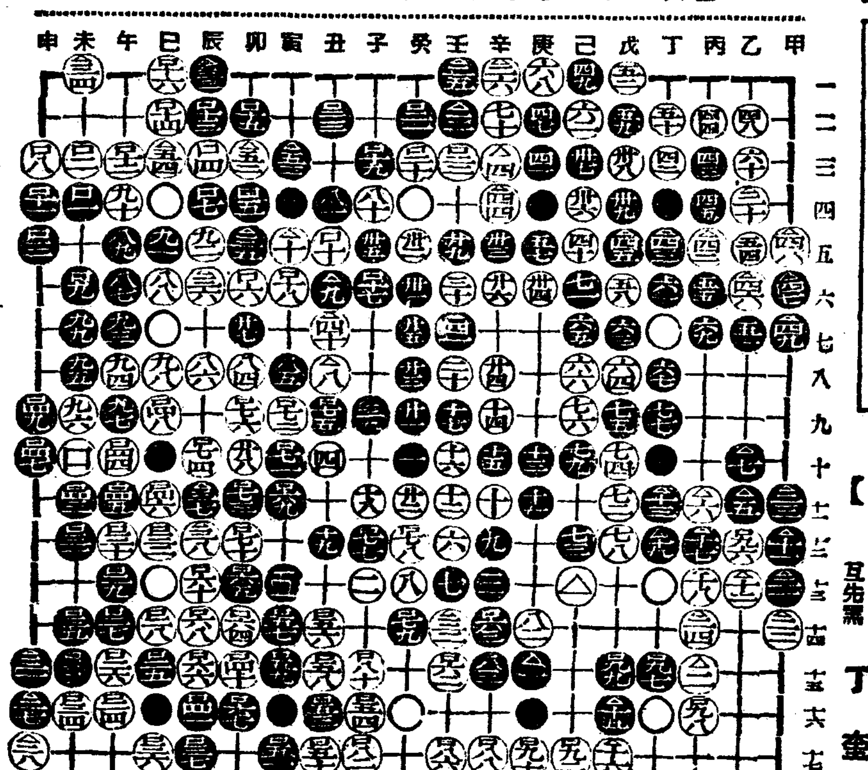
曆

七月廿六日(金) 舊六月燭癸未(小)廿六日 癸卯·金·亢·成
●嫁娶·移徙·裁衣·上樑·開市·納財·啓攢에宜함
▲小暑 八日(舊六月初八日)
▲初伏 十三日(舊六月十三日)
▲中伏 廿三日(舊六月廿三日)
▲大暑 廿四日(舊六月廿四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4】

白 閔仲植
互先黑 丁奎春

【●一三一】辰의一 【○一三二】未의一 【●一三三】卯의五 【○一三四】辰의六 【●一三五】辰의十一 【○一三六】辰의十二 【●一三七】子의九 【○一三八】丑의七 【●一三九】壬의七 【○一四〇】丙의五 【●一四一】丁의五 【○一四二】辛의四 【●一四三】戊의五 【○一四四】乙의六 【●一四五】甲의六 【○一四六】甲의七 【●一四七】午의七 【○一四八】辰의九 【●一四九】卯의三 【○一五〇】寅의三 【●一五一】巳의三



◇蔡極文氏評

白이 自耳角을 完保하고 黑一耳角을 奪回하고 中央까지 指揮連絡하야 不趨平法方이나 然이나 自起初로 己庚辛五六七에 不少한 氣勢가 多少間頓挫됨이오 黑은 寅卯十五六七區內大局가 甚難 이로미 매암이아 西北○邊이 總裁난 末段하나 少規模로 成立되고 己庚辛五六七에 初節得利가 相當함으로 最後頭旋은 이로써 推測하노라

黑 丁奎春 三目勝

시원히 잘먹고
爽快히 썩잘퍼고
完全히 오래가는
八色의 우데나!

손쉽게 化粧下도업시 엇던분의素肌에도 썩잘마저서 땀에도안밀리는白粉입니다
─◇─
볏에안걸게하는데第一

肌色 オクール一號
濃肌色 オクール二號
健康色 ナチュレル
白色 ブルン

ウテナ水白粉
(우데나 물백분)
32錢·53錢

東京本鋪 久保政吉商店

出版界에對한提言
局外의一學徒로서 ④
李軒求

朝鮮이가진 現代作家의 文學評論의 斷片的告白에依하면 그들이私淑한바作家란 거이나 外國의文豪들이엇다 일부러 이事實을 拒否하라는 大膽한無謀를 冒하라는者는 아마도 一二의(例하면『春史』라는匿名人의 痛論을 除하고는)人士에不過할것이다 이와가티 오늘의 小說、詩에 專心하는

【少壯】作家의 事實만으로도 劃期的 出版文化飜譯文化의意義는實로絶大의急先務가 아닐수업다 누구인가어느紙上에서朝鮮의中堅作家들의作品을 드러 그語彙의不足을 指摘하엿고 더나아가 現在詩人이 詩作에使用하는 語彙가 不過數百이라는 數字的報告에象한經驗을 告하엿다 나는 그들語彙의不足을가지고 그들作家의 無能을 함께非難하라고는아니한다 오히려 問題는 그들語彙의 不足보다도 한個의作品 構成하며 그作品을 展開식혀가는 素材即作品이가질바內容、思想의把握과 그表現에關한 文學的敎養即作家個人의力量으로 돌리지아니하면안될것이다 沙翁이나궤ㅡ테、유고ㅡ를스토이나 더욱朝鮮作家들

【私淑】의祖宗이되다 시피하는 도스토이엡스키에잇서서 日前 어느紙上에 柳致眞君이 率直히 言明함과가티 君의戲曲속에는 無數한『오케시ㅡ』의手法과 그思想이 숨어잇다고함과가튼 充實한私淑과 그들의感化와 攝取가 잇서가지고 그들作家의 力量을 더充實히한다면 오늘朝鮮作家의 水準은 한層 더놉흔境地로向하야 進展되여왓슬것이다 더욱文章으로의 表現에잇서서 훌로벨과가튼苦心은 아니라고하더래도 한個의事件 어느瞬間의人間의精神狀態 無關心한듯한 自然描寫의捕捉、더나아가 그社會의時代的雰圍氣의認識에 厚大한敎訓을ㅡ더適切히말하면 모든文學制作生產過程에 잇서서의 心的營養과準備를 싸키爲해서 그役割을 引受하여야할 出版文化의意義를 더욱高調하지안흘수업다、以上의

【叙述】은 마치 朝鮮에잇서서 飜譯出版만이 唯一한 急先務라고力說한듯한嫌疑를 바들지도모르겟다。勿論 飜譯出版의必要를 切實히 늣기는 筆者라는것도 率直히 言明하거니와 筆者는더나아가 出版文化의 取할바 다른한個의길을 이저바린것이 아니다 即 朝鮮이 가지고나려온 文化史的集大成의 第一步를 가장獻身的인 用意周到下에서 實踐되기를 企望하는바 한사람임도敢히 말하지안흘수업다 外來思想의支配가 가장强烈하엿든 朝鮮의文化를 가장科學的인立場에서 佛敎文化를爲始하야 儒敎文化에서 西歐文化에 이르기까지의 公正한 批判과 事實的報道를象하야 그中에 介在한 朝鮮이 일커러자랑할수잇는 幾多의思想家와 偉人의業蹟의集大成과 朝鮮文化變遷의全面貌를 彷彿히하는 大事業이 마치 英國이나 佛蘭西가 十八世紀에잇서서

【完成】한 歷史的大出版『百科全書』的大計劃이 企圖되어야할것이다 이러한要望이 그實行될可能性에잇서서 幾多의相當의未曾有의 가 어찌안흘것도 想到하지못함은아니로되 佛蘭西의「百科全書」가 第一卷出版에서 第十卷終了까지에 實로 十五年이라는時日을要하엿슴을볼때 躁急스러운短時日의達成보다도 歷史的偉業의 事業으로서 이에着手되어야할것이다 日本內地에잇서서도 日本文化의 全的集大成의完結을 아직 보지못하고잇는現在 朝鮮이 이에率先된 實現과 努力이 幾微的成果에까지 일울것이가書考慮할도 자못 一顧에 値하려니와 그러라면 이大衆의 準備過程에잇어서 한時代 한時代식의 어느 統一된部面을 穿鑿하야이에 專心하는

【機運】의促成과 實的 實踐의運行을 圖謀할수는 업슬까? 이야말로局外一學徒로서의 瞻蓄와가튼提言에만 끈칠淺慮의 하나나 아닐까?

條件反射論小考 (3)
鄭槿陽

그러나食物을 주지아니하야도 개는食物의내음새를맛거나、食器소리를듯거나

【飼養】하는사람만보아도 唾液을흘린다。개에게食物을줄때마다、普叉를울려、그소래를듯게하야、이러한實驗을거듭하면、나종에는、개는食物을주지안코 소리만들려도 唾液이分泌되는것이다 이가튼反射는決코先天的 遺傳的의것이아니요、그動物의過去의歷史의도움으로 成立되는것이며、주는刺戟과이러나는反射와의關係는極히不規則的이며間接的이다。이러한反射를 파브롭호는『條件的』又는『相對的』反射라고 命名하엿다。모든反射는 無條件反射』及條件反射로나 눌수가잇게되고 大腦機制를 條件反射하라하게되여 漸漸그重大性을더하게되엿다。即、條件反射는 大腦半球를摘出하면只今까지에記憶하엿든것을全部이저버릴뿐만안이라다시새로히 形成식힐수가업슴으로써條件反射는大腦半球의機能의하나임을 알게되엿고 따라서條件反射에 依한唾液分泌를 測定研究함에 依하야 大腦機制는純客觀的으로研究할수잇게되엿다 파브롭호에 依하면 모든條件反射는 無條件的刺戟을

【基調】로하야 그와同件식힐時에 成立된다。例컨대 聽覺에 依한條件反射를 作成하랴면 주는飮食物과同時에 어떤音響을 들려준다。이러한 實驗을거듭하면 마츰내 動物은 食物을 주지아니하여도 그音響만 듯고 唾液을 分泌함과가트다。그리고 모든條件反射는 無條件刺戟과 同伴하지 안는때에는 反復에 依하야 次次 消失하는 性質을가지고 잇다。例컨대 犬에게食物을 보여서 十滴唾液分泌가 잇섯다하면 멧時間을 두고 數次反復하야 食物을 보이면 八滴、五滴、三滴、二滴等漸次로 減少하여지며 마츰내 보이기만 하여서는 分泌가이러나지안케된다。即一定한 外部刺戟을無條件的

【刺戟】과同時에주고 이를거듭하면 마츰내 이에 相應한 條件反射를만들수가 잇다。이와가티 任意로 만들수도잇고 또任意로 깨트릴수도 잇슴이 條件反射의重要한事實이다。

이方法에依하야 實驗한結果 犬의知覺을 研究할수잇섯다。먼저 犬의聽覺은 파브롭호가 가장詳細히 研究한바이며 이方面의知識은 相當히 聚集되여잇다。그結果에依하면 音의拍子 即振動數에對하야 人間이 들을수잇는範圍는 最低三〇 最高五萬振動이나 犬은 最低七〇 最高八萬振動이다。또實驗犬의 大多數는數日을지난後原音에서 四分之一 半音고 或은나진音을

【區別】할수가잇섯다。엇던개는八分之一의差가 잇는音을 區別할수가 잇섯다。特히 銳敏한것은 音의强度에 對한 知覺이다。例컨대、엇더한强度의 音의 條件反射를지으면 同一音이래도 조곰强한音으로는 何等의 影響도 이르키지안는다。그리고 이두音은 조금間隔을 두면 人間은 到底히 區別할수업스나 犬은 數時間後에 들려도 明瞭히 區別하엿다 이結果로 推測하면 犬은 發達된音樂의 聽覺或은 理解를 가지고 잇는듯하다。勿論明白한斷言은 할수업다。視覺에對한 重要한 實驗結果는 犬은『스펙톨』의 各色彩를 區別하지못한다는 事實이다。그리고

【形狀】에 關해서는 三角、四角、五角、圓等과의區別、實線과點線과의區別 또는事物의大小에關한 知覺이存在하는것은 實驗的으로 證明되엿다 食物을주면서 그와同時에 三角形을 보이면 無條件反射로서唾液이分泌되게된다。그러나 이時期에 四角을 보이면 唾液을分泌하지안는다。이리하야 三角形과四角形을區別한다는것을客觀的으로認識할수가 잇게된다。運動의方向에 對해서는、上下及左右運動은 識別할수가잇다。

皮膚感覺에잇서서는、溫覺과冷覺을區別할수잇스며、이와

【器械】的刺戟과를 區別할수잇다。以上의結果는唾液分泌의 分量으로刺戟의比較的强度를 推測할수가잇다 嗅覺、聽覺、觸覺(器械的刺戟)視覺、溫冷覺의順序다。

自生的批評의功過
探報臺

상트·부브가 그의『月曜閑談』속에서말하기를 佛蘭西의 文學批評은 巴里의『살롱』에서 주고밧는對話속에서 始作한것이라고하엿다。그래서 이것을 틔보ㅡ데라는사람은 다시 自生的批評 또는 말로하는批評이라고하엿다

이러한 自生的批評이란 批評으로서의 가장素朴한初期現象이니만큼 어떠한社會나 어떠한時代에든지 다잇슬수잇는것이며 또한 批評的批評이 넘우 批評으로서 치우치는때문에作品에 對한 透徹한 理解를 等閑하게 하기쉬운데 比해서말로하는 批評이往往이 尖銳한見解를 보혀줄때도 잇는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사람의對話란 말하는 두사람以外엔는 가장 不正確한것이며 더구나 對話란 一定한體系를 갓지안는것이다。여기에서 이러한解明은 姑捨하고라도 이러한 自生的批評이라는것이 作家에게주는 影響이란 엇더한것이냐하면 이러한 自生的批評이란 本來부터 論難의속에서 遂行되는 것인만큼 열사람이면 열사람 百사람이면 百사람의 意見과 印象이 다 달은것이다 그럼으로 萬若 作家로서 이러한 批評에 一一히 介意를하다면 그야말로 賣春婦와가티 每人悅之하는 方途를 찻는수밧게업슬것이다。

더구나 이러한批評은 참다운 批評의精神에서 생기는것이 아니고 一種의 閑談餘話로 終始하는것인만큼 이것은 時代的으로 批評의精神이 弱해젓슬때에 더욱 만히跋扈하는것이니 보라 요사이 참다운批評대신에 茶房에서 街頭에서 사랑房에서 이러한自生的 批評이 얼마나 盛行하고 잇는가를。이러한것은 우리의文學을 조곰도 質的으로 向上식히는것이 아니고 도로혀우리네의文學을 混亂과 低調의一方으로 몰어넣는것 밧게는아모것도아닐것이다。(如水)

特色은個人的敎授

樂界의權威者를網羅한 夏期音樂講習會

科目及講師
◇피아노科……金永煥·金元福
◇바이올린科……洪蘭坡·桂貞植
◇聲樂科……金文輔·朴榮根
◇理論講義……(課外共通科目)
◆音樂鑑賞法……洪蘭坡
◆發聲法의科學的研究……朴榮根

時日 八月一日부터 八月十日까지 (延期)十二日間
▲午前部 午前九時부터 ▲午後部 午後三時부터
場所 未定
定員 各科二十名
會費 一科目에三圓 (會員이면 他科目의 傍聽은 隨意)
申請 七月三十一日까지 (朝鮮日報學藝部內音樂講習會後援係로)
主催 在東京朝鮮音樂家協會
後援 朝鮮日報學藝部

人種學上으로興味잇는『붓슈멘』族의保護策
南阿國立公園委員會의企劃

【요하네스부어』(南阿)發聯合郵信】『아메리카인듸안』과함께 世界의 滅亡해가는 民族의 하나로서치는 南아프리카의『붓슈멘』族을위해서 住居區를 設定하자는 企劃이 目下南阿의 國立公園委員會에 依해서 準備되고잇다。

現在에 잇서서는『붓슈멘』族은 南阿의 다른部族、特히『호텐톳트』族에게 一種의 奴隸와가티 使役되고 잇스며 또한 彼等은 白人을 매우 恐怖하고잇다。그리고 彼等의生活은 極히 原始的이여서 아직도 弓矢를가지고 잡은 野獸 鳥類를 食物로하고 불이라고는 가장 原始的인 燧石으로 만드는 狀態에 잇다。『붓슈멘』族이 年年이 減少해 오는 原因은『호텐톳트』族들의 他部族과 雜婚을 하는데 잇슴으로 公園委員會가 住居區를만드려는것도 人種學上 純粹한『붓슈멘』族을保護하고彼等의民族的特徵을 保存하려는目的인것이다。더구나『붓슈멘』이 人種學上 現存人種中 가장興味잇는種族으로되여잇슴으로 今回의企畫은學問的으로 매우有益할것이라고한다 委員會가만들려고하는 彼等의住居區는『요하네스부어』附近의『카라하리·굼스복크』國立公園內이다。

外地異聞

現代의鐵假面
『에』國廢帝逝去
〈〈國事多難한이때〉〉

【巴里發聯合郵信】國境紛爭때문에 지금이라도 强國伊太利와 戰端을 열게가티 보이면서도 또 한엽으로는 燥急한 世界新聞紙를 애타케하는 東阿의 黑人帝國에티오피아에『現代의鐵假面』이라고 하는 幽閉되여잇는 廢帝『리티·야스』帝가 近者에 逝去하엿다고 最近의『파리·쏘아르』紙는 特種記事를 報道하엿다。거긔에 依하면『야스』帝는 一八九六年아드와一戰에 侵寇해온 伊太利의 大軍을 粉碎한英帝『메네리크』二世의 孫子로서 一九一六年『에디오피아』에서 거듭한 部族反亂때문에 被禍되어서 王位를 簒奪當한 結果、伯母『자우듸ㅡ브』가 即位하고現皇帝『하이레、세라시에』一世가 그攝政이되엿다 그래서 一九一七年『야스帝』는 逮捕되여 六十尺四方의 鐵檻에『하랄』族의山間에幽閉되기前後 八年그동안垂橋를通해서서把守와交通할따름인『鐵假面』의 生活을 보내고잇다가 이半年前부터 死去하엿다 더구나 政府는이것을 嚴秘에붓처서 지금까지 아는사람이 업다고한다

新刊紹介

▲前線 七月號 京城府慶雲洞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發行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三錢
▲大衆國威 七月號 東京市麴町區平河町一의五 大衆國威聯盟總指令局機關誌部發行 振替東京九六七〇番 定價二十錢(和文)
▲셀판 八月號 東京市麴町區三番町一의一 第一書房發行 振替東京六四二二三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和文)
▲新人文學 八月號 京城府外城北洞一六二 靑鳥社發行 振替京城二八三七番 定價三十錢 送料一錢

(1)

記憶에남은……『飮氷室文集』
李一

畵家의見地에서는 色에도 熱色이잇고 音樂家의見地에서는 音에도 熱音이잇스니까 文을戲弄하는 사람의見地에서 文에熱文이 期於히이서야될터이다 이課題가 納涼隨筆인것을보면 모든 사람들중 灼熱地獄에서 呻吟하는時節이니까 一讀으로 或時萬分之一의凉味를 맛보게할수잇슬가하는 新聞政策이라고 할려인 節隨筆은 凉文이라야만 그目的에 符合할터인데 假令 文字自體에 잇서서는 何等의 凉熱의 感을 가지지못하엿지마는 그文字로 凉을 그리기는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안일줄하다。다시 말하면 火災니야기를 한참 써노흐면누가 보던지 熱을늣길것이고 氷山氷河니야기를 한바탕 적어노흐면 或서늘함을 늣기지아니할가。

내가 이제 凉文一節을 생각할적에 내머리에 널어나는 記憶은『飮氷室文集』이라는 冊名인데 지난 光武와 隆熙年間에 朝鮮讀書界를 風靡한것은 인제는등물게차자 볼記憶이러니와 只今五十六代讀書人들은 一讀或은 二讀을하얏슬터이지만 나는 그時에 年幾하고 見識이 不足하야서 一頁도 읽어보지못하고 다만冊名으로 記憶에 남아잇슬뿐 이며 現下 朝鮮에는 그만큼한 文集이야 何等興味를 喚起식일것이 그다지 만치안켓지만 그年間에는 所謂『新學問』이라는 것이 『舊學問』이라는 金城鐵壁에 一打를 加하던 時節이여섯슴으로 當時에잇서서 時局을 觀察하고 大勢를살펴볼 눈을多少間 가젓던 新進靑年에게는 오아시스와 갓치 늣김을 주어슬것이다, 飮氷室이라는것이 그 文集作者의 雅號이닛가 그文集이 飮氷 과는 何等關聯이업슬터이지만 如何間冊名으로夏間에 適當하게되겟갓치 생각긴다

그리고 以上飮氷室文集과갓치 내記憶에 남은것이『종帽子』이다 이것은 엇지하야서 생각이나는 고하니 年前에는 누가말종으로 女子의 핸드빽을 發明하엿다고하더니 數日前에는 平壤에서엇던사람이 말종洋靴를 發明하얏다고 그被發明品爲實과 意味이 엇던紙上에 실니엿섯다、종帽子라는것이 亦是光武와隆熙年間의產物이엿던줄로 아는 三十代以下사람들은 잘모를것이고 亦是그것을 서볼年齡에는 못達하야섯지만 쓰고단니는 實物은 보앗는대 本來朝鮮사람의頭飾品인당건、망건等이 말총이엿스니 開化하는바람에 削髮하고 망건과 당건을 안이쓰게되고 外國製品인 헐방거지 中折帽子를 쓰는 터인즉、누구던지 조금만有意하야스면 말총으로 中折帽子을 發明하기 그다지어려운 일이안이여슬것이지만 이것은 女子의 핸드빽甚至於洋靴까지 發明한다는것은 무슨그말종과 朝鮮사람이 因緣이나잇지안이한가하는생각이난다 隆熙年間에는 그것이男子쓰는 말총帽子가 昭和年間에 이르러서 女子가 신는 말총洋靴로 變體하는것은 생각하면 무슨興味가잇슬듯하다。發明者 사람들이 머리에무엇을 쓸 必要를 늣기게되야 업마음文化에나간後이겟지만 大槪가布木等類로 머리裝飾品을 맨들러인데 朝鮮서처럼 말총으로 만드는것은 다른나라에서 類를보기 듬은것이겟고 또 늣기 말총等物이 舊學問鐵壁이 깨여짐을따라 그運命을가리안지 벌서四分之一世紀가 지냇거든 今日에는 女子의핸드백으로 或은 女子의洋靴로 變體하는것이 무슨曲折이 잇는듯 하지안이하며 存在하얏더니 이번에는 女子의 신발인 洋靴로 化함이 아모리 하야도 鄙俚餘一節에 한마듸잇슬뭇하다 종帽子紀念이 낫던판이라 종帽子存在하얏던가운데 그中크게 國際的으로 役割을한사람은 米國人宣敎師 元杜宇氏엿섯는데 그종帽子가 元杜宇氏의 머리우에 언치어서 米國各大都會地는 勿論이엿지만 그리로 太西洋을 건너서 倫敦、巴里、伯林等 近代大都會로부터 古代古蹟인 파레스타나、에집트等地까지 단니엿다。그리고 내가 一九一二、三年頃에 종帽子를 求景한것도 元氏의 頭上이엿섯고 元氏는朝鮮에서 종帽子가 零落하야가고 製造業者가 破產을 한後이라도 依然히 종帽子禮讚을 마지안이하며 恒常쓰고 단녓다。只今은 延禧校庭에서서 銅像化한 元氏가 내말을드르면 亦是종帽子하며 생각을 할터이고 그때종帽子가 총구두로 變體한다는말을 드르면 或時 今昔의感이 잇지안이할가。

黑風 (86)
韓龍雲 作
金朝 挿畵

초연 9

그들은 폭포를 건너다 보면서 정신을 빼앗긴것처럼 한참 보다가 서로 말을하얏다 그것은 말이라고 하느니보다 감탄(感歎)하는 소리엿다

『어! 조타 참 조쿠나』

『엇지면 저렇게 조흘가』

『조화옹(造化翁)은 세계를 만들때에 재조를 가지고 다니다가 뭉텡이채 빠첫구나』

『사람으로는 상상(想像)도 못하지오 아마』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을 저울질에다 시처내엇스면 얼마나 조흘까』

하고 한숨을『후ㅡ』쉬이면서 다시

『그러치 안허요 쿵난씨?』

하는것은 왕한이엇다

그말은 대답도 아니하고

『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영원히 여기서 사랏스면 조켓서요』

하는 쿵난은 실로 자기 스스로가 폭포 그물건이 되고십흘만치 감격을 늣기엇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하야 사는것은 아니겟지오 우리들이야 만 여기서사는것보다 나이야가라 폭포를 가저다가 전세게 사람에게 주엇스면 조치아니할까요?』

『세상의 조타는것이 무엇이든지 본것보다 듯는것이 낫다는대 나이야가라 폭포만은 듯는것보다 본것이 이십배나 낫겟습니다 듯는때에는어떠하리라고 상상할수가 잇섯지마는 보고나니까 무엇이라고 형용 할수가 업습니다두고 구경하려면 몃날근이 될는지 모르겟습니다 본을 모르고 구경하는것은 자미가 업습니다 선생님 나이야가라 폭포에 대한 력사라든지 지리라든지 그러한것을 말슴해주서요』

『나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나이야가라 폭포는 서력(西曆)일천륙백칠십팔년에『히네핀』이라는 사람이 발견하엿는데 지금 폭포가 잇는 이땅은 아메리카와 카나다의 경계입니다 이폭포물은 유명한 다섯 호수중의 네호수물을 합하야 흐르는것인데 폭포우에고트』라는 섬(島)을 가운데에 두고물이 양편으로 나우어 흘러서 동쪽으로 흐르는것은 아메리카 폭포라하고 서쪽으로 흐르는것은 카나다 폭포라합니다』

왕한은 손을 드르고 말을게속하랴할 지음에

『저것이 아메리카 폭포고 이쪽것이 카나다 폭포라는 말슴이지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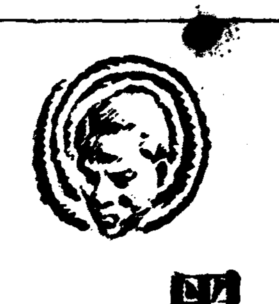
하고 쿵난은 손가락으로 동서의 폭포를 차례로 가르치면서 말하얏다

『그럿습니다』

하는 왕한은 말을 계속한다

『그런데 아메리카 폭포는 놉히가 일백륙십칠척이고 폭은 일천척입니다 그러나 카나다 폭포는 본는바와 가티 그형상이 말굽처럼 되앗스므로 말굽폭포라고도 합니다 그것은 놉히는 일백오십팔척이오 폭은 이천오백십칠척 이어서 놉히는 아메리카 폭포보다 조금 엿지마는 폭은 이배반이나 넙습니다 두폭포의 흐르는 물은 일초동안에 이십만립방척(立方呎)즉 칠십도이나 됩니다 그런데 십분의 구는 카나다 폭포로 흐른답니다 이물을 리용하야 미국과 카나다에 수십만 마력(馬力)의 수력전긔(水力電氣)를 노하서 이근방의 시가는 공업도시(工業都市)가 만히 되앗습니다 이폭포의 지질(地質)은 위로 이십륙미돌은 석회암(石灰岩)으로되고 아래층으로 이십륙미돌밧은 이판암(泥板岩)으로 되얏는데 이판암 이라는것은 연한것이라 차차 다라드러가는니다 아래층이 다라드러간답니다 위층의 석회암은 바치는힘이 업고 물의힘은 무거워서 점점 문허진답니다 그리하야 해마다 아메리카쪽은 이십센치 카나다쪽은 오센치씩이 다라드러 간답니다 그러고 그남어지 위에노흔 다리라든지 좌우에잇는 공원이라든지 맛혀잇는 바람굴이라든지 그런한것은 차차구경하면 알겟지오』

왕한은 기억 나는대로는 나이야가라 폭포에 대한 이약이를 자세히 하얏다



補血强壯新藥
부루도ㅡ제

避暑 療養 休養
健康恢復의 補血劑로는 斷然第一!

健康을得하자면 榮養의完全을期하야新鮮한血液의補給을增强케하여야 합니다! 即身體를組織한細胞中에는반다시鐵分이含有되어 잇씀니다。故로强壯增進을目的하는補藥은鐵劑보다더조흔藥이업습니다 부루도ㅡ제는即有機鐵蛋白酸化合物로서人體臟器中의貴重成分인造血素와同一集成으로된强壯劑로서血液의增强과同時에體質을根本的으로改善하야體量을增進케하고精力을旺盛케합니다。

各帝國大學病院 指定常備藥

부루도ㅡ제는左의製劑가有함
貧血諸症에 單味부루도ㅡ제 小瓶二、〇〇 大瓶三、二〇
神經衰弱에아루센부루도ㅡ제 小瓶二、三〇 大瓶三、七〇
虛弱兒童에게 요ㅡ도부루도ㅡ제 小瓶二、三〇 大瓶三、七〇
疲勞恢復에 기나부루도ㅡ제 小瓶二、三〇 大瓶三、七〇
呼吸器病에 구아야콜부루도ㅡ제 小瓶二、六〇 大瓶四、二〇
『活動의源泉』이란冊子 請求次第進呈
京城府黃金町
株式會社 藤澤友吉京城支店
本社 大阪道修町二
KB-67

十年間耕作하든 作權을無理剝奪

小作人은調定을申請

【咸興】가장 인의(仁義)를 표방하고잇는 향교(鄕校)에서 무리하게도 소작권을 박탈하여 생사선상에서 헤매게된 소작인칠명이 지난 이십일 함흥법원에 소작조정을 신청하여 잇다 정평군 광덕면 중흥리(定平郡廣德面中興里) 사십이번지 이만사천여평은 원래향교전인 동리답 배수(朴培洙)라는 사람이 연고자로 수천원의 비용과 다대한 로력을 드려서 개간하여 가지고 경작하여오든것을 신청인 리회숙(李會叔)외 륙명이 박배수(朴培洙)에게서 소작하여오든바 이래십수년간 정평향교와 전야사정(査定)때에 분쟁이 생기게되여 향교도산업과에서 조사한결과 드디여 금년삼월 이십칠일부로 정평향교(定平鄕校)에 양여키로되엿는데 이양여를 바든 동향교에서는 즉시다년간소작하여오든 전기칠명에게 소작권 박탈하라는 엄명을 발하고 소작은 라면에거주하는 봉유자작농에게로 이작 하엿다는것이다

中和邑上水道 明年度設置?

【中和】귀보=평남중화(中和)읍에상수도설치기성회에서는 목적을관철키위하야 맹활동을 계속하는일방 총독부에 진정위원을 파견진정한결과 예산에 편성하기로 승락을 엇고 돌아왓는데 명년도에는 착공실시하리라고한다

荷物車墜落으로 同乘荷主慘死

【統營】지난이십삼일 오후오시십오분경에 통영군동남면 장문리원문(龍南面長門里院門)카부에서 화물자동차일대가 약삼십오메돌 단하에 추락전복되엿는대 차는 진주읍앵정 천상자동차부(晋州邑榎町川上自動車部)소속 경남륙백사십륙호로서 운전수진주읍수정정 민치종(閔致鍾)(二○)이가 그 석탄을 만재하고 화주인진주군도동면소천리 정세조와 동승하고 통영방면으로 가든중 전기장소에서 진주발통영향의 경남사백이십구호 운전수김모의 화객자차와 만나서 로길을 피하려다가 그만추락되여 화주정세조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운전수는 극적으로 경상을당하얏다는데 통영경찰서에서는 현장에 급행하야 전긔화물자동차운전수를 검속취조 중이라한다

冷害地長津地方 大體로豐作豫想

粟、大豆는依然悲觀

【咸興】련이년간 미증유의 랭해로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장진군(長津郡)의 금년도 농작상황은 조사한바에 의하면 지난 륙월중순 때인인 강설과 강우로 각종 농작물은 모다 성숙이 불완전하야 전도가 극히 우려되든바 칠월에 드러서는 점차 천후가 순조로 나가 이십일현재 연맥 대맥 마령서등 주요식물은 모다 평년작보담은 증수를 예상하며 속(粟)과 대두(大豆)는 성숙불량으로 평년작보담 감수되리라는바 종별로 보면 다음과갓다

燕麥	作付面積	一七○○町步
	普通作	
大麥	作付面積	三三一町步
	收穫豫想	一三六○石
	平年作보담은增收	
馬鈴薯	作況良好	增收

원식을 기부하야 일반의 찬사가자자하다고 지방유지를 초대하야 성대한연회를하얏다고

本報支局後援 料理講習盛況

【北鎭】귀보=운산군북진면(雲山郡北鎭面)대암동부인회(大岩洞婦人會)주최 본보북진지국후원의 료리강습회(料理講習會)는 경성리전가사과 리태영(李泰榮)선생의 하긔휴가환향을 긔회로 열리게되엿든바 이십륙명이라는다수회원의 참가로서 종별마다흥미를견한채 지난이십삼일에 드되여 끗맛게되엿는데 실로이번강습회는 일반가정부인의 유일한지식으로 누구나 커다란수확을 하엿다한다

音樂大會開催 圖們幼稚園同情

【圖們】사만여 동포가 모힌 도문지방의 유아교양긔관으로 유일한 도문유치원은 개설이래로 지방인사의 절실한 리해와 동정과 유치원 당국자의 고투적 선으로 유아교양에 전력을 다하여 오늘에 이르럿는데 매년 증가되는 어린이들을 현재의 불완비한 교사로는 도저히 수용할수없는 형편으로 주야 원사신축대책에 부심하든중 금번외지의 악사급 유지제씨들의 자진출연하기로 되여 본보지국과 동아일보 도문지국후원으로 오는 이십륙、칠 량일간 당지 국제극장에서 원사신축 긔금념출음악대회를 개최하는바 만흔 동정이 잇기를 바란다고 한다

開城에서처음인 美術通俗演講

【開城】개성고려청년회학예부에서는 오는이십오일 오후칠시삼십분부터 고청대강당에서 미술통속대강연회를 개최하리라는데 미술강연이 개성에서 처음인만큼 일반은 다대한긔대를 가지고잇스며 연사는 유경순(劉景淳)화백으로 다년간 동경에서미술에 대한연구를한분이라고한다

宋炳雨氏美擧

【參禮】전북삼례창신농장주 송병우(昌新農場主宋炳雨)씨는 지방공익사업에 대하야 년래로 다대한공헌이 잇든바특히씨의회갑연을 긔념하기위하야 작년의와서는 익산군왕궁면(益山郡王宮面)에잇는공립왕궁보통학교(公立王宮普通學校)에 자진하야일금 천원을긔부하고 금년늦에는 삼례면엇더부락에 일금이백원을기부하고 지난이십일경에는 삼례공립보통학교(公立參禮普通學校)와사립삼례영신학교(私立參禮永信學校)에각백

그女子의一生 (168)

春園 作　夕影 畵　방랑편

「그래서?」

하고 금봉은 을남의 말에 기끈흥미를 느끼면서、

「그런데 그남자가 누구요?」

하고 을남의 못 이룬사랑의 에먹은 남자는 그림엣 떡이란 말이지。잇자니 악저를지나——」

「이저질거면 무슨 걱정야?」

하고 금봉이가 대구를 놓핀다。

대수를 알고시퍼한다。

「그런데말야」

하고 을남은 말을 이어서

「그러니 죽지도 못하고 마음 그렁 사람이란 잇길곳 잘하는동물이지마는 이즈려들면 더생각이 나는걸 그래서 에라내 마음대로 몸을버린바이니 그사내를 한번 후려내어나 볼까、금세이런생각을 다하엿서。」

「에그머니 언니도」

「그럼 어떠케? 그야 내가약이오르겠지。그래 그사람을차꾸 찾아갓지。가서는 울어보고우서보고、무엇은 안해갓서? 그러치만 이 사내가 돌부처님이라、암만 지근덕거려도 눈이나 거들떠보냐 페니 내 속만 다보이고 말앗지。」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말앗지、어떠카나? 소설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혼자서 마음속에 그리고、그 그리움을 품고 그 애뜻한 마음으로 양식을 삼으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도 잇지안어? 저 이백철리 가터말이야 남자로 치면 이노크 아렌도 그럿지만 서양사람들은 곳잘 그 짓을 하나봐 그러치만 나는 그게 안돼 내가 장년이 돼서 그런지원。」

하고 을남은 한숨을 쉰다。

「참 그럿스면 조키는 조흘테야 그까진 흥이니 부부생활이니、그런 추접스러운것 다 말고 마음속으로만 깨끗하게 사랑을 품고갓스면 얼마나 조흘까」

하고 금봉도 한숨을 쉰다。

얼마 잠잠하다가 금봉이가、

「그래 그 남자—언니가 사랑하던 그 남자는 도모지 언니를 사랑하는 긔색을 안보여?」

하고 그 문제를 계속한다。

「왜 호의야 가지지。」

「그래 언니가 자근자근 졸르면 무에라고 해요?」

「하하 그러케 알고십허?」

금봉은 낫을 붉힌다。을남은 금봉에게 미안한드시 곳 말을 이어、

「인생이 왜 연애뿐이냐고。연애가 죄는 아니지마는 연애를 이기는것이 더 거룩한 일이라고。예수도 일생 독신으로 지나시고 베드로랑 바울이랑도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지안핫느냐고。그이들도 사람이니깐 이성그리운 정이 업섯슬 리야 잇느냐고。그러치마는 연애와가튼 자그 일신의 욕망보다 더 크고 거룩한 사명을 자각하고 목숨까지 희생을 하엿스니 그까진 연애따위냐고。우리 조선청년들도 연애이상의 남녀가 만히 생기지아니하면 아니 된다고—그저 이 말이지。그러니 아모리 나 가튼 잡년이기로니 이런 말을 듯고야 다시 무에라고 하나?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하고 물러날밧게」

하고 유심하게 금봉의 눈치를 본다。

금봉은 을남의 말을 듯고는 이야기듯던 흥미도 다 깨어지고 전신을 칼로 어여내는듯한 아픔을 깨달으면서、

「언니 그이가 누구요? 언니。그게 모두 정말이오? 나들으라고 꾸며대는 말이 아니오?」

하고 의심스러운 눈으로 을남을 유심히 본다。

「꾸며대기는」

하고 을남은 거의 비창하다고 할만한 표정으로、

「내가 왜 꾸며대나? 인제는 다 말해도 괜찬흔때가 되엇스니깐 금봉이 보고 한번 설파해야 될말이니깐 말한게지」

하고 마치 솟는 눈물을 삭히랴는 사람모양으로 눈을 꿈적꿈적하면서、

「그만큼 말하면 내가 더 말하지아니해도 금봉이가 다 알앗지?」

「무얼요?」

「그래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고 하니 임학재란말이오。」

금봉은 말이 업시 고개를 숙인다。

「금봉이가 임을 사랑하는 줄을 알고는 내가 샘이 낫서요。그것도 인제 자백하지。그래서 오늘 금봉이의 사랑을 훼방을 놋노라고—금봉이헌테 내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려 왓성。나는 금봉이가 샘이나서——」

하고 말할수 업는듯이 입을 다문다。

俄然人氣沸騰

이런長點……
1 多年의研究에經驗
2 洗鍊된獨自的技術
3 嚴選을 쓰한 各種原料
4 高雅한意匠과卓越味
5 世界的大量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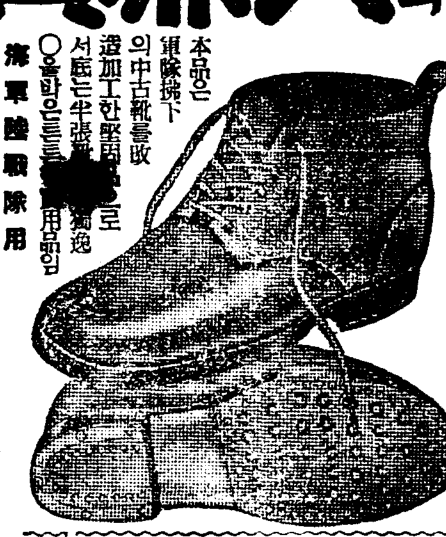
洗鍊된標準型

スプリング サドル (스푸링구 사도루)
グレート印W型 (구레—도)

新案登錄

神戶 製造元
山本サドル株式會社

諸官省拂下 中古品의大廉賣



◉陸軍拂下 改造編上靴 茶利革 一足 二圓二十錢
本品은軍隊拂下의中古靴를改造加工한堅固品으로 서민에게 適當한 實用品임
海軍陸戰隊用 黑編上靴 一足二圓五十錢

◉海軍省拂下防水布外套(中古品) 一等品 一着 二圓九十錢
本品은現在海軍에서使用中인大形中古品으로서黑厚고무질한二重의防水用으로絶對安全堅固品임
鐵道省拂下防水外套 一等品 一着 一圓八十錢

◉海軍拂下水兵短靴 一足 一圓九十錢
本品은海軍省拂下水兵短靴를改造한堅牢品底는厚牛張革을打込한實用堅固品
下士官用 一足 二圓十錢

◉鐵道省拂下紺セール純毛詰襟服(中古品) 一等品一着 三圓五十錢 二等品 一着 一圓三十錢
本品은現在鐵道省에서使用中인中古純毛紺セール詰襟服으로生地는官製優良厚地蒸絨이로完成品
紺色夏小倉綿製 一着 一圓四十錢

◉米國製直輸入 舶來パジャマ(新品) 一着 一圓五十錢
本品은米國에서輸入한것으로生地는白牛極薄色라미ー生地仕立은純舶來堅固品外人의寸法인故로寸法大이옵
作業服形 一着 一圓五十錢

◉葉書로注文即時代金引換小包로直送함
名古屋市東區清水町局向
陸海軍 諸官省 拂下品 卸問屋 合名會社 松山商店
電話東六二一九番　振替名古屋壹壹五壹壹番

猪印
のみとり粉
빈대 잡는 약
カラリと晴れた五月の空のやう
この一振りで蚤、蚊、南京虫、蠅
油虫、この害虫のなやみも
明朗さよ
大阪 本舖 安住大藥房
C—2

●腦의疲勞
勤勞過勞
工夫後
等頭腦의疲勞時에
ノーシン (노—신)
음服用하라 腦의疲勞가快히回復되는妙藥
明快
해지며愉快히工夫할수잇는安全한腦力恢復藥
全鮮藥店에잇습니다

オセロ (오세로) 痔
疾藥으로治療하고笑顏
¥ 1.20
¥ 2.00
¥ 3.50
¥ 5.00
各地藥店에잇습

65
仁丹

疲勞가만흔 夏節事務에

工夫에
氣分을爽快케하고
身體의機能을敏活케하는
淸凉한仁丹이곡必要

疲勞는氣分으로부터…라고까지말하라며 精神的으로明快케하는藥効가진唯一한 增健强壯劑인仁丹은 近代生活에하로도이질수업다。

七月二十三日より復興特別公開 晝夜十一
大都映畫特作現代劇 神力の號外 原案脚色……
監督……根岸東一郎
南部章三 藤間林太郎主演
共演 高村榮一、若月輝夫、大和玉枝、松村光夫、千代田綾子、河村月枝

ウイリアムフオツクス超特作發聲
日本版 貞操切符
ラルフ、ウオルツユ…監督作品
エリツサランデイ
ライオネルバリモア
ローレンスオリバー 主演
世界大戰の餘燼はロシヤ本國をもその渦中に捲き込んでしまつた貴色の貞操切符を持つ宿命の女性の戀と戰爭の人生縮圖 なつかしや故人の亡き魂の故國へ歸る時思ひ出の映畫任俠時代劇の白眉

大都映畫特作俠血大時代劇
櫻吹雪源太時雨
原案脚色……小堀一平
監督……中島宝三
杉寛太郎、月宮乙女主演
都健太郎、東實子、久松玉城、河村月枝、共演
本町一丁目 大正館

七月廿三日부터 特別大興行
每日三回 午前十一時半 午後二時半 七時半
◎女性이여 世上에는 이러한 기막힌 母性의 悲劇이 許多하다 자식이 나셋 인 니 어머니…
名畫…
模倣의人生
◆M、G、M特作日本版
卿의超特急
…主演

全鮮第一映畫殿堂
團成社

待望의二大連續篇 七月二十五日부터晝夜三回大公開
유社超特作發聲連續篇!
猛虎다ー산 全三十卷中 解決十四卷
大都映畫社超特作現代連續篇 吉村操氏監督作品
串差おでん 解決篇

大發告=世界는웃는이다 漫畫 全卷
優美館

七月二十三日부터三日間 每日三回 十二時三時半八時
大衆料金 階下大人三十錢小人二十錢 階上大人三十錢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品
活劇 一合馬車
◎松竹키네마社代表的豪華大作全發聲
明治의文豪柳川春葉의名作映畫化
監督 池田義信
二人靜
栗島すみ子 川崎弘子 主演
朝鮮名畫 …
仁寺洞 朝鮮劇場

主要工業 業績低下
補助部門은 向上繼續
上期決算檢討內容

下期財界의 前途에對하야 樂悲兩樣의觀測이잇서 或은 인푸레景氣解消乃至는 再景氣化로進展하고잇는 反面에는 인푸레景氣를 唱하야 區區不一한 이때에잇서 上期決算을 檢討하야 日本內地 主要工業의狀況을 調査한것에依하면 主要工業은 業績이低下되엇고 補助部門은 向上되어 크게注目되엇섯다

日本內地의 主要事業會社로서 그株券이 實質取引이만흔 百七社의 今年上半期의 營業成績을 綜合하면 如左하야平均 利益率은 一割六分五厘로 前期의 一割六分에 比較하야○六%의低下에 不過하나 調査會社中 前期에잇서 風水害의被害를受한것이 不少한것을考慮에넣으면 營業成績의 惡化가 相當히顯著한것을 認하여야할것이다 前前期比較에잇서는 三、一%의業績 好化이오 또內容的으로는 工業低下、補助産業向上을結果한다 主要工業의 業績低下에는 部分的過剩生産의 顯現에依한製品市勢의 低落도關係가잇스나 基調的으로는 正金調査貿易 單價指數가示하는 輸入品高 即原料高騰이 利潤低下를 招來한 까닭이 아닌가?

營業成績總括 (單位百萬圓%)

	十上	九下	九上
拂込株金	二、四〇三·三	二、四〇九·五	二、〇〇〇·六
總利益金	二四〇·九	二〇〇·三	二六六·七
株主配當	二三〇·一	一〇六·六	九七·四
社內留保	一〇〇·〇	一〇一·一	一四〇·〇
利益率	一六·五	一六·六	一六·〇
配當率	七·六	六·九	六·二
留保率	二一·四	二〇·〇	一六·六

主要工業

主要工業會社五十九社의 平均利益率은 前期의 一割四分八厘로부터 當期三分八分로 [illegible] 低下되어 內容的으로는 ○%의 低下이엇고 內容的으로는 造船製鐵、石油石炭及食料品 工業의 營業成績은 向上되엇스나 其他는 모다 低下되엇고 就中人絹業을 包含한 纖維工業의 一九·四%低下、紡績의 六·三%가 甚한것이엇다 株主配當은 石油石炭及 食料品工業은 增配、纖維業은 據置 其他는 多少의 減配를 하얏스나 結局에 잇서는 綜合配當率은 前期와 不變한 影響이엇다 그리고 利益金의 處分에 前期에 比較하야 七十三萬圓 增加에 不過하나 未拂込株金 徵收에 基하야 對外配分이 約二百九十萬圓 增加하얏슴으로 結局 二百二十五萬圓이 社內留保에 잇서 減少하얏다

工業會社成績總括 (單位百萬圓)

	十上	九下	九上
拂込株金	一、五五〇·七	一、五〇九·〇	一、四〇〇·一
總利益	一四九·二	一五六·五	一三九·五
株主配當	八四·四	八二·五	七〇·〇
社內留保	六六·五	六〇·八	七〇·〇
利益率	一三·八	一四·八	一四·六

配當率	一〇·四	一〇·四	一〇·三
留保率	四四·四	四五·二	四五·〇

事業別利益率對照

綿絲紡績	三·〇	三·三	三·七
纖維工業	二六·八	二五·四	二六·六
窯業	三·〇	三·六	三·〇
化學工業	二〇·二	二二·二	二二·二
造船製鐵	一二·九	一一·六	一〇·二
製紙精糖	二五·〇	二六·九	二四·六
石油石炭	一四·九	一三·六	一三·八
食料品業	二〇·七	二〇·三	一九·九

補助工業

補助産業會社 四十八社의 營業成績은 産業界의 全面的生産活動旺盛을 移하야 綜合的으로는 繼續向上一途이오 平均利益率은 一割一分八厘로서 前期의 一割一分四厘에 比較하면 三·五%의 良化이며 海運業、百貨店、土地建物業은 倂進的으로 一〇·一%의 利益率을 높히고 電氣業의 그것도 四·九%를 記錄하얏다 此間信託業의 利益率低下는 金利의 普遍化에 基한 資金運用金의 減少、取引所는 主로서 株價低落과 取引數量 減少에 依한 手數料減收、當然 其他는 季節的關係에 依한것이다 株主配當 復活을한者 繼續하야 配當을 增加하얏슴으로 인푸레 景氣에 依하야 營業成績이 好轉하야 向上과 相俟하야 增配 又는 一般前期平均配當率은 前期의 四分八厘로부터 五分八厘로 向上하얏고 이에 留保도 減少하얏다

補助産業會社成績總括 (單位 百萬圓%)

	十上	九下	九上
拂込株金	一、八五六·五	一、八三一·五	一、八〇六·五
總利益	二三三·七	二一〇·六	一九六·六
株主配當	二五·七	二一·一	二一·四
社內	一二·〇	一二·二	一〇·七
利益率	二〇·八	二〇·四	一九·四
配當率	五八·八	五八·三	五五·〇
留保率	一〇·八	一〇·三	一〇·〇

事業別利益率對照

電氣	一〇·八	一〇·四	一〇·三
海運	一二·〇	一〇·四	九·〇
商業其他	八·六	八·二	八·一
鐵道其他	八·八	八·二	八·〇
土地建物	九·二	九·〇	八·四
信託	一〇·四	一〇·〇	一〇·〇
取引所	八·八	九·〇	一〇·一

滿洲國畓統制로 朝鮮移民에 큰影響
五十晌以上開畓、水利事業은 實業大臣認可必要

總督府着情報 ＝滿洲國의 米作問題는 廣大肥沃한 地域과 掠奪農法의 餘殘餘地、開畓可能地의 廣大等으로 特히 米를 生命線으로하는 朝鮮으로부터 關心을 惹起하고잇는데 滿洲國 實業部에서는 米作의 水田統制를 實施키로되엇다

即 從來 水田開發의 水利事業은 省公署에 屆出程度로 自由放任되어 朝鮮人의 滿洲自由移民도 自由로 開畓을 行하얏스나 今回 滿洲國實業部大臣의 制令으로 五十晌以上의 開畓、水利事業에 對하야서는 實業部大臣의 認可가 必要하고 開畓을 認可事項으로 하얏다

右는 總督府 外事課에온 最近의 入報인데 開畓認可는 明白한 水田統制의 表現이라고 보이며 其他具體的內容은 判明치안으나 자못 重視된다한다

國際投機業者의 攻擊中心이된和蘭
金本位維持決意코防衛나 危機防止는至難視

【東京電話聯合】和蘭銀行이 二十四日 突然公定割引利率을 三分에서 五分으로引上한것은 어떠다지던지 同國이 金本位를維持코저하는 決意를 示하는것인데 右에 對하야 爲替銀行方面에서는 和蘭은 金의 自由市場임으로 國際投機業者攻擊의 中心이되기쉬움으로 金의 逃避를事前에 防止코저 從來만흔 金本位國이 取하던것과가티 金利政策에 依한 消極的防衛策을 取하는것으로 보고잇다 다만이것만 가지고 和蘭金本位의危機를 未然에 防止할수잇슬것으로 보은 早計이다 此際 和蘭金本位와重大한 利害關係를 가진佛、英의直接 乃至間接的援助가 必要할것이오 特히 佛蘭西現在의佛貨의 小康狀態를 攪亂밧고 십지안흐며 英國도亦是 金블럭崩壞念慮에依한 磅의昂騰을 欣喜치 안흠으로 此際何等의援助策을 取케되리라고 觀測하고잇다

公債政策의 藏相聲明要旨
漸減方針이지만 多額發行을難免

【電通東京電話】高橋藏相은既報와가티 二十六日 午前九時五十二分 東京發列車로 葉山御用邸로 天機奉伺에 赴하야 歸京하야 藏相이 抱懷한 公債政策에 關하야 車中談의 形式으로서 聲明을 發表할터인데 그聲明 要旨는如左하다

一、明年度豫算은 이미編成方針에 明示함과가티 公債低減의 主義에 基하야 經費의 節約을 圖코저하나 內外의 情勢는重要 其他經費에 關하야 顯著히 減額을 期待할수업고 從하야 多額의 公債發行을보게되엇다

一、公債消化力은 現在 未曾有한 狀態에 直面하엿스나 金融機關의 公債 所有高는 이미相當한 多額에 達하고 過去와가튼 圓滑한 消化는 困難하다

그런데 一部에는 過去의 公債政策의 成功에 鑑하야 無謀한 公債增發을 唱하는者잇스나 如斯한 論據는 公債消化力을 過大視한것으로서 如斯한것은 財政의 基礎를 害할뿐아니라 延하야는 悪性인푸레를 惹起하고 國家의 信用을 失하야 國民經濟를 破裂에 導하는 危險性이 보는것이다

土改解散
今日總會서可決

朝鮮土地改良會社 解散總會는 二十五日 午前九時半부터 同社에서 開催하고

一、營業報告와 決算報告及損益計算書承認件
一、當期損失金處分案議決件
一、取締役任期滿了에 對하야 改選件
一、會社解散決議件
一、淸算人의 選任과 其報酬에 關한件

을附議하야 原案대로 承認하고 取締役改選은 모다 重任、淸算人은 取締役 全部가 任하고代表取締役으로서는 今井五助氏久

橫濱生糸 七百圓臺

依然一氏의 兩人이 選定되엇다

米國財界好況에 依하야 依然繁騰을거듭하던 橫濱生糸는 二十五日後場에至하야 當限寄付가七百圓으로 大暴騰이엇다

天然氷合同 九名만調印

過去四個月에 亘하야 調停委員石原磯次郞、曾禾相、稻田友二郞三氏가 極力斡旋하야 決裂까지

政府拂下米 京仁에逆入
石二十八圓으로低價 京城에萬石突破

政府米拂下米中八年産朝鮮玄米는 仁川京城倉渡石二十八圓가량인데 地場九年産玄米에比하야 石二圓內外低價로 商談이成立되으로 昨今逆移入商談이 成立되어 京城만도 一萬石을 突破하기에 至하얏다

蘭共販配定에 産組도包括?
製絲側은原料不足云爲나 統制잇는購繭必要

春繭共販에잇서 平南德山과咸南永興等에서 絹織産業組合의 購繭에依하야 共販이 全혀不振에 終始하얏다는것은 朝鮮製絲協會의 操短一因이되어 産組事業과 製絲會社의 利害對立 在來織物消費와 製絲用과의 可否等의 諸問題를 生하얏는데 明紬織 其他在來絹織生産도 地方工業助長으로보아 育成의 必要가잇서 이原絲用의 組合製絲도 發展시킴이 理想이다 一面製絲의 原料繭 不足問題도 解決하여야 할것으로 이點에 잇서 總督府에는 蠶繭에 逢着하얏는바 이傾向이 生한것은 地方景氣의 昂揚으로 在來絹織消費增大와 製絲側의 好轉에 依한것으로서 結局 産組에도 共販配定을 行하야 統制잇는 購繭을 하게하는 以外에 他方法이 업는듯하다한다

農改低利資 二百萬圓增額
肥料配給事業에融通

農事改良低利資金은 從來大藏省預金部로 부터 年額 一千五百萬圓의 融通을 受하야 東拓殖銀、金組의 三者로 부터 貸出하얏섯는데 朝鮮農會를 主體로 明 肥料年度(十年八月부터 十一年七月)부터 肥料配給事業을經營하기로 決定하얏는바 同事業開始에 伴하야 資金이 不足할으로 總督府에서는 同配給事業의 農會側과 協議한後 大藏省預金部에 對하야 右農事改良低利資金의 增額을 折衝中이든바 大體 二百萬圓의 增額이 內定되엇다한다

合同條件의不滿

된 京城府內第十一 天然氷業者合同問題는 今月十九日調印 當日에 至하야 蓬萊町鈴木小平太氏及麻浦京江物産兩業者가 缺席하얏슴으로 更히 廿三日午前十時를 期하야 總督府會議를 開催키로 되엇는데 當日도 右二名이 出席치안어 不得已 九名만調印하얏다한다 右二名의 調印忌避는 合同條件에 不滿이 잇서 全業者合同에 二名의 不賛成者를 남기엇다는데 調停委員은 經過를 京畿道에 報告하고 道當局 亦 佐伯警察部長及 天岸衛生課長에게 兩業者를 招來하야 當局의 方針을 諒解식히엇슴으로 其結果兩名의 態度決定은 今日中에 道當局으로부터 調停委員側에 通告하리라한다

靑島紡績自由操短

【電通靑島廿四日發】紫華를자랑하던靑島 紡績界도 實行不振과 原棉高 製品低로 드되어 二十三日自由操短을 하기에至하얏다

海東銀行總會
頭取制를廢止 會長專務制로

海東銀行定期總會는 廿五日午二時부터 열고

一、當期諸決算案承認의件
二、同利益金處分案議決의件
三、取締役三名任期滿了에對한改選의件
四、定款變更의件

을附議하고 一二號案은 原案대로可決하고 取締役文尙宇、李之松、金在洙의三氏가重任되고 四號議案은 缺員中의 頭取制를廢止하야 會長制를設置하고 會長으로金季洙氏 專務에文尙宇氏가 就任하엿는데 株主配當은 年四分이라고

今日財界 (廿五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六·一	〇下
大阪期米 先限	三三〇	不變
東三品米 中限	三三·二〇	二〇下
正米(仁川)改良一石	三一·〇〇	
一斤(京城)在來		

◆兩市若樂價

金 一匁	一圓六·三	
銀	一錢八	
示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三·一〇	一〇低
東新	六〇·九〇	一〇高
日産		

◆商品 (先限單位錢)

大阪綿絲	二〇〇·四〇	一〇高
大阪綿花	三六·九五	五高
大阪人絹	一〇〇	
大阪砂糖		
大阪米		

經濟界消息

○川崎第百銀行株主總會＝【電通東京電話】川崎第百銀行에서는 二十五日 定期株主總會를 열고上半期 利益金處分案(配當六分据置)을 可決하고 後任頭取는 互選한結果 關根副頭取를 昇格케하기로 決定하엿다

○貯蓄銀行總會＝朝鮮貯蓄銀行定期株主總會는 廿五日 午前十時十五分 殖銀會議室에서열고 一、第十二期貸借對照表、財産目錄、損益計算書承認의件 一、同利益金分配案議決件 一、任期滿了의三取締役及監查役二名改選의件 을上程附議하엿는데 一、二案은 모두原案대로 可決하고 第三案은 菊地株主의 動議에依하야 木村和水、迫間房太郞、植野勳의 取締役과 木村雄次金季洙의 二監查役이 모두重任으로決定하고 同十時卅分 閉會하엿는데 株主配當年八分이라고

○『鮮航』評議員會＝【鮮航同盟會】에서는 二十五日도 大阪本部에서 臨時評議員會를 開催하고 二十四日에 繼續하야 尼崎汽船脫退後의 善後處置와 今後의配船과 運賃問題에 對하야 協議하기로되엇다

商況 (廿五日)
株式 場面寂寥 傍觀
前場閑散 今前場은米桶

高로 綿絲各限二百圓臺에回復이나 豫算編成問題로 軍部、內、農四省과藏省이 對立하야 그歸結이注目되는만큼 形勢傍觀으로變方面職意의閑散이엇스나 即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低인 百三十七圓丁 日産十錢低인 六十九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東京電燈四十五圓九十錢 日鐵九十八圓十錢 日鐵新三十六圓丁 鋼管九十三圓八十錢 三菱新五十三圓七十錢各一本이엇섯다

後場保合

後場은 小軟保合裡閑散早引이엇스니 即前引에比하야 東新十錢高인 百三十七圓十錢 日産二十錢高인六十九圓四十錢에大引 朝新二十五圓五十錢日魯六十一圓四十錢 一本이잇섯다

極度閑散商狀

最近의 國際情勢로 軍部豫算의 膨脹을 必至로보며 特히 世界各國의 軍擴傾向으로보면 健全財政을 아모리 떠들지만 軍事費膨脹은 不可避形勢임으로 軍需工業株는 軍需인푸레 再燃을豫想코 好況인터이나 國際關稅戰으로 日本品에 對한防遏은 去益露骨化하야 輸出貿易에關係잇는株는 總體的으로 悲觀濃化이며 軍部豫算 十四億圓內 農도巨額으로豫算編成이 果然어떠케 되지 아니 正面으로 對立하고잇슴으로藏相方針과 全然背馳된 各省과의要求가 어떠케 될것이지 注目되며 政治季節도 在近함으로 이것저것 不安은 不去하는모양이어서 今前場은 綿絲各限 二百圓臺 回復도 無勢이고 極度閑散이엇다

財界悲觀論 (一)
一軍需株는想買 輸出關係株晝賣

素人은 財政인푸레로 財界인푸레가 起할것가티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것은擴見생각이오 도

財界

不安이나 公債不信으로 財政不安이나 公債不信을 招來치안는다 財政不安이나 公債不信은 財界인푸레에不外하다 生産力以上의 消費가 繼續되어 비롯오 大規模의 財에 及하야 財政인푸레로되는터이오 그러함에만 赤字公債增發과 赤字公債의 不消化가 財政不安과 公債不信을 招來케된다 (徵)

世人

은도財政不安과 公債不信으로 財界인푸레가起한는것가티 생각하나 그것도 잘못이다 財政不安과 公債不信은 財界인푸레의 結果로서 財界가인푸레에陷함으로 財政不安과 公債不信이되는것이다 財界가 인푸레에陷치안흐면 赤字公債를 암만發行하야도 기시것 赤字公債市勢가下落하야 公債恐慌이나 銀行恐慌이起할理는업서 그때문에 도리어 財界는 예풀레化할뿐이다 即赤字公債의激發과 赤字公債의不消化는 公債恐慌 銀行恐慌을 通하야 財界예풀레를 招來할뿐이오 財界인푸레를 招來할리 나

리니 財政인푸레보다는 財界인푸레가 重大한 產物이다

큰財政인푸레는 財界인푸레로부터起한다 그러면 財界인푸레는 무엇으로부터 起하는냐? 그것은 生産力以上의 消費를 하게하는 戰爭과 가튼 大事件勃發에 依하여야할 것으로 從하야 戰爭과가튼大事件이업시는 大財政인푸레도 起할수업다

實物前場取引
實買高三百四十枚

▲金剛電鐵三〇 ▲同新三〇 ▲滿洲工廠九三〇 ▲川崎造船三〇〇 ▲人造米毛三〇〇 ▲宇治電四〇 ▲忽布麥酒二〇 ▲川崎優先三〇 ▲日立製作七〇 ▲同新三〇

市場六感

株

各國關稅戰이漸次擴大되어 露骨化함으로 軍需株는 樂觀不許 ▲貿易關係株는 國內 關係에 限定된것은 樂觀無關이나 이것도歐洲大戰 當時와가티 戰爭即樂觀이라고는 할수업다 ▲豫算이 어떠케되지 全然 五里霧中에 잇슴으로 이것이 어떠케되던지 輪廓이라도 보이기前에는 맘노코사기도 어려웁고 팔기도어려운實情 ▲이래저래 來月까지 大株合이繼續되어 文字그대로의 夏枯閑散으로 消日할

가怯난다 ▲사서大景氣를 想像할수업고 팔어서 大瓦落을期待치 못한다면 妙味가업는것이 事實 ▲더구나增稅問題가機에觸하야 작구나올모양이니 사기는 더구나조심 ▲이런때일수록 健實株의 物色買如何?

米

豪雨가 지나간後日氣의 酷暑를 催하고잇다 그동안 水災의 歎이업지 안헛스나 稻의 成長은 良好할 모양 ▲日本內地도土用에 入하기前까지는 連日雨天으로 惡影響이 업지 안헛스나 結局土用天候만은 良好 ▲何如間 日本內地及朝鮮이今日의 現象으로 보아서 平年作은 無難할모양 ▲그러데稻作狀況으로 보아서는 賣方針을 樹하지 안흘수업스나 그러나 正米의 實勢로 보아서는 잘아리 買賣成하는것이 良策일듯 ▲果然在米의 狀態를 보면 需給의 不安도 업지안커니와 直接影響을받게되는渡米蒐集이 一大問題 ▲그럼으로 天候를 注目한다는것보다 政府의 態度를注目하지 안흘수업다 ▲寶로政府가 大量拂下를 하지안는다하면 端境期의 食糧問題가 如何한結果를 招來할지注目處

東京國債市場

【電通東京電話】分貨價는 利好感으로買進되고 佛貨는 二十[redacted]錢、米貨六分半十五錢五分半一十錢高로 更히新高價를 付하엿스며 國債는 大體小動商狀이엇다

▲甲五分利一〇四四〇 ▲一回四分利九八八〇 ▲二回四分利不申 ▲佛貨四分利一八七二五

期米 少幅往來 採合
前場保合

昨後場 阪地三十一圓〇六錢止와共히 二十九圓四十五錢에 場을 止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阪地는 天神祭의 休會로 東京二十圓七十錢인 七丁反高와 兵庫二十九圓八十六錢인 昨止同樣의 報를 接하고 二十九圓四十六錢인 一丁高로 場을 始한後 京神共히 軟態에 傾하야 東京은 六十七錢 兵庫는 八十二錢에 止場함을 伴하야 四十二錢에 場을 止하엿다

後場細刻

後場은二十九圓四十二錢에 同價始場後 二節四十三錢이엇고 五節까지四十一錢同價에 釘着이고 別關가리止場하다

中途彷徨狀態
兩方의警戒로

阪地賣方主力側이든 田下貞一派가 軟化하고 土用入의 天候가 良好하다하야 一段瓦落을 告하는 各地市勢는 實米의 事情이 深入落을 許하지아니하는 만큼 更히 底固의 形勢로 阪地는二十餘丁 當地는 三十餘丁의 反撥을 示하더니 伸力도 意外遲鈍하야 因而中途彷徨의 狀態를呈하려하여도 時日을 經할에 떨할뿐이다 要하면 實方針을 樹하고 在米가 極度로 稀薄하야 需給의 不安又는 渡米調達의 歎이업지아니함으로 安心買를 하지못하고 買方針을 取하려 하여도 무엇보다 市勢이라 買警戒를하지안 近한 最高公定米價에 接할수업스며 兼하야政府의拂下念慮又는稻作의 大體良好를 繞하면서 買安心을 하지못하게되므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限		中限		先限	
ⓖ	一〇〇	ⓜ一〇〇	ⓖ二〇〇	ⓜ一〇〇	ⓖ三〇〇	ⓡ三〇〇
저	二〇〇	食 二〇〇	저 二〇〇	食 二〇〇	食 二〇〇	地 三〇〇
ⓑ	一〇〇	ⓣ二〇〇	ⓒ三〇〇	ⓗ二〇〇	ⓩ三〇〇	ⓐ二〇〇
錦	五〇	ⓚ一〇〇	지 一〇〇		ⓤ三〇〇	

正米去益品貴
稻作과別問題

가리 朝鮮及 日本內地의 稻作이 比較的 順調임에도 市勢가 今回와如한 豪雨에도 全鮮方面은 그惡禍를 受하지못하고 依然相場不足으로 晩時의感이나마 稻付는 全혀晩熟狀態로 向作豫見치못하게되엇다 그러나 全鮮을通하여보면 今日의 現象으로 平年作은 無難할것갓고 日本內地의 稻作은 一時關西地方과 北九州方面의 水害가 업지아니하엿스나 大體良作으로 도한수年作以上은 無難할모양이다 이와가티 兩方共히 警戒不安는 同時에 市勢는 自然難伸難押으로 當分 作意 一般치못할모양이다 今後 果如何?

朝鮮及 日本內地의 稻作이 比較的 順調임에도 餘米가 稀少하야 現實의 正米事情이 極度의品薄으로 渡米蒐集難을 愁하지 아니할수업을 豫期하고 容易히 低價를許하지아니할모양이다 勿論稻作이 아무리 良好하다할지라도 正米와는 全혀別問題임으로 今後의 天候如何보다도 政府米의 拂下繼續如何를 注目할 必要가잇다 高硬派는 主唱한다 果如何?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三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策

堂島期米例休

【電通大阪電話】大阪堂島期米市場은 天神祭大祭로 例年과가티 二十五日 前後場共히 休會이다

堂島休日氣配

【大阪電話】一般으로 稍目買氣가旺盛이오 今朝는 夜來의冷氣와各地稍特冷으로 休會의氣配는堅調

東京前場情報

【東京電話】大阪休會이오 買氣가不振이며 地軟派深川의賣로 氣配가 買方의氣楽薄으로 賣方을 減殺하야 當限도 漸漸歩調이엇다

各地正米

京城閑況

依然하야 顯著한 取引이 업시 閑況을 呈하야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不動

續下의 決定으로 賣方이 依然하고 取引高의 小口買가 散見될뿐으로 原料의 小口買面인 丸仁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三十五錢

釜山續騰

市場賣物二千叺 對日本內地取引이 不振이오 依然當用向의 小口買에 不過하나 取引高가 二八六叺、所持의 高價생각深甚과 產地의 品薄深刻化로 氣配更히 十錢續騰인 角ク三等三十圓七十錢 四等三十圓三十錢 一等白米十五圓九十錢

大邱躍進

奧地市中共히 品薄은 逐日深刻하며 取引이 全혀 皆無狀態이나 氣配만은 三十錢躍進을 告하야 角ク三等三十圓丁 四等二十九圓七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群山不變

遞萊米의 出廻旺盛으로 日本內地 買付全無하고 取引이 閑散하나 產地의 品薄顯著와 所持의 實勝強硬으로 氣配不變이오 强含商元을 示한 變ク三等二十九圓九十五錢 四等二十九圓八十錢 一等白米十三圓二十錢

木浦不變

日本內地 拂下注視로 氣迷이나마 在庫薄으로 賣方이 依然強硬하고 取引이 看稀閑散만한것이업서 市況이 無變인 丸木多賣三等三十一圓十錢 四等三十圓九十錢 雄町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五十錢

南浦下押

依然所持의 持意强硬으로 閑散場面이 訂正되지안코 今朝는 定期의不勢로 氣配十錢下押인 丸十龜尾 三等二十九圓六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米日爲替小落

【紐育二十四日發聯合】今日의米日爲替는 前日과 比하면 賣二十九弗二十四仙으로 二仙低이오 買二十九弗二十二仙으로 二仙低이다

株式 (廿五日)

◆朝取短期

	前引	高價	低價
朝取	三三·〇〇	三三·一〇	三三·〇〇
朝新	[illegible]		
大新	一三〇·〇〇	一三二·〇〇	一三〇·〇〇
鐘新	九五·〇〇	九五·〇〇	九五·〇〇
東新	三六·八〇	三六·八〇	三六·八〇
日産	六九·〇〇	六九·五〇	六九·〇〇
日鐵	九一·七〇	九一·七〇	九一·七〇
同新	三五·二〇	三五·二〇	三五·二〇
鋼管	九三·五〇	九三·五〇	九三·五〇
三菱新	五三·二〇	五三·二〇	五三·二〇

◆實定代引日步

	實定	日步	代引
朝取	三〇·五〇		
同新	三三·〇〇		
鐘新	[illegible]		
大新	[illegible]		
東新	[illegible]		
日産	六九·〇〇		
帝人	一〇〇·〇〇		
日魯	六一·二〇		
西合新	一五·〇〇		
安取	一〇·〇〇		
拓新	一〇·〇〇		
日鐵新	三五·〇〇		
同新	二〇·〇〇		

◆朝取短期賣買高 合計 四·一〇〇株

◆東京現株

	寄付	大引	高値	低價
東株	三三〇·〇〇	同新		一三八·〇〇
鮮銀	七一·〇〇	同新		
殖銀	六七·〇〇	同新		
滿拓	六〇·〇〇	同新		
東拓	三〇·〇〇	同新		
富士紡	六一·二〇	日石		

◆東京短期

	前場	後場	高價	低價
東新	一三七·〇〇	一三七·一〇	一三七·二〇	一三六·八〇
日産	六九·二〇	六九·四〇	六九·五〇	六九·〇〇

◆東京短期取組

	賣方	買方
日産	五〇	二〇
東新	兩建	

◆大阪短期

	前場	前引	高價	低價
大新	二〇〇·四〇	二〇〇·四〇	二〇〇·七〇	二〇〇·三〇
鐘新	一一八·五〇	一一八·九〇	一一九·一〇	一一八·五〇
日産	六九·二〇	六九·四〇	六九·五〇	六九·〇〇
東新	一三七·二〇	一三七·一〇	一三七·三〇	一三七·〇〇
日毛	一〇三·〇〇	一〇三·〇〇	一〇三·四〇	一〇二·八〇
淺野	三一·〇〇	三一·〇〇	三一·二〇	三〇·九〇
帝人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一〇五·四〇	一〇四·八〇
同新	八六·一〇	八六·二〇	八六·四〇	八六·〇〇
日魯	六一·三〇	六一·四〇	六一·五〇	六一·二〇
日鐵	九一·七〇	九一·八〇	九一·九〇	九一·六〇
鋼管	九三·五〇	九三·六〇	九三·七〇	九三·四〇
日鐵	九八·〇〇	九八·二〇	九八·三〇	九八·〇〇

◆大阪長期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新	二〇〇·四〇	二〇〇·四〇	二〇〇·五〇	二〇〇·四〇
鐘新	一一八·七〇	一一八·九〇	一一九·〇〇	一一九·〇〇
日産	六九·三〇	六九·四〇	六九·四〇	六九·五〇
東新	一三七·〇〇	一三七·一〇	一三七·二〇	一三七·一〇
日毛	一〇三·〇〇	一〇三·〇〇	一〇三·一〇	一〇三·〇〇
淺野	[illegible]			
帝人	一〇五·〇〇	一〇五·〇〇	一〇五·一〇	一〇五·〇〇
同新	八六·〇〇	八六·二〇	八六·三〇	八六·二〇
日魯	六一·二〇	六一·三〇	六一·四〇	六一·三〇
日鐵	九一·七〇	九一·八〇	九一·八〇	九一·七〇
鋼管	九三·五〇	九三·六〇	九三·六〇	九三·五〇
日鐵	九八·〇〇	九八·一〇	九八·二〇	九八·一〇
東株	二三八·〇〇	二三八·〇〇	二三八·〇〇	二三七·〇〇
同新	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一二〇·〇〇
鐘紡	一九六·〇〇	一九六·〇〇	一九六·〇〇	一九六·〇〇
同新	一二一·〇〇	一二一·〇〇	一二一·〇〇	一二一·〇〇
大株	八八·〇〇	八八·〇〇	八八·〇〇	八八·〇〇
同新	四四·〇〇	四四·〇〇	四四·〇〇	四四·〇〇
日糖	七七·〇〇	七七·〇〇	七七·〇〇	七七·〇〇
日産	六九·三〇	六九·三〇	六九·三〇	六九·三〇

米 (廿五日)

◆朝取期米

	前場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後場一	二	三	四	五	六	七
當限	二九·四六			二九·四五				二九·四四			二九·四二			二九·四三			二九·四一
中限	三〇·〇三			三〇·〇〇				二九·九九			三〇·〇〇						
先限	二九·四四			二九·四五				二九·四二			二九·四一						

◆朝取期米賣買高

	賣買高	取組高
當	一·三〇〇	三·〇〇〇
中	三·三〇〇	三·三〇〇
先	一·二〇〇	三·八〇〇
合計	五·八〇〇	一〇·一〇〇
本期總計		

◆朝鮮內各地期米

	前場	後場
釜山	二九·五〇	二九·四〇
大邱	三〇·二〇	三〇·一〇
群山	二九·五〇	二九·三〇
木浦	二九·四〇	二九·三〇

◆大阪市中在米高

日本內地玄米	一二四、三〇四
同白米	一二〇、四八九
朝鮮玄米	六〇二、八四三
同白米	四八六、二九一
台灣玄米	二〇、五八二
同白米	一八、一〇六

◆東京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	三三·二〇	三三·二五	三三·二〇
後場	三三·一〇	三三·二〇	三三·一〇

◆日本各地期米

	前場	後場
神戶	二九·八六	二九·八二
下關	三〇·四〇	三〇·二五
名古屋	三〇·四九	三〇·四五

金融 (廿五日)

◆海外送金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融

海外送金	七·三〇〇	
朝鮮銀行券	一五九·八四三	
日本銀行券	一·二二三·八五六	
京城手形交換	二、五五九	
東京金	二·一〇四	

米穀 (廿五日)

◆仁川正米 ◆大阪正米標準價 ◆京城雜穀 ◆仁川大豆 ◆大豆 ◆金買入價 ◆外國爲替

仁川 改良 一等	三一·〇〇	
同 二等	三〇·六〇	
京城 白米	三二·〇〇	
大豆	一九·一〇	
小豆	一三·四〇	
粟	一四·五〇	
大麥	六·〇〇	

商品 (廿五日)

◆京城綿糸布 ◆京城雜貨 ◆日本綿系 ◆大阪綿系 ◆大阪棉花 ◆大阪砂糖 ◆各地人絹 ◆橫濱生糸 ◆鑛滓 ◆大連特產 ◆滿洲商況 ◆海外砂糖

	前寄	前引	後寄	後引
大阪綿系 七月	二〇〇·〇〇	二〇〇·四〇	二〇〇·三〇	二〇〇·四〇
八月	二〇〇·三〇	二〇〇·五〇	二〇〇·五〇	二〇〇·四〇
九月	二〇〇·三〇	二〇〇·五〇	二〇〇·五〇	二〇〇·五〇
十月	二〇〇·三〇	二〇〇·六〇	二〇〇·六〇	二〇〇·五〇
十一月	二〇〇·三〇	二〇〇·六〇	二〇〇·六〇	二〇〇·六〇
十二月	二〇〇·四〇	二〇〇·七〇	二〇〇·七〇	二〇〇·六〇

大阪棉花 當限	三六·八〇	
大阪棉花 先限	三六·九五	
橫濱生糸 東京 當限	五四〇	
橫濱生糸 先限	七〇〇	
大阪砂糖 當限	二·一八	
大阪砂糖 先限	二·三五	
現物糖(ST) 實買中値	二一·五錢	
現物D格	六七〇圓	
倫敦 七·八月		
紐育 七月·八月	五弗二分	
四五二斤		